

독도

작자 : 효림 (실천전국불교승가회공동의장)

캄캄한 밤, 그 넓은 바다를 뒤척이며 잠 못 들다가
새벽, 먼동이 틀 무렵
아하! 하고 무릎 치며 깨달은 절창처럼
더도 덜도 말고 그 정도로
고렇게 귀중한 섬

너 독도는 우리민족에게 그만큼 귀중한 것이 되었구나.

이제 울렁이는 가슴위로
다시 격동의 폭풍우 덮친다 한들
요렇게 까지 귀중해진 것을
대한(大韓) 사람 어느 누가 지키지 않으랴

해설 : 독도는 우리 조상들에게 늘 깨달음을 주는 거울 같은 생명의 보물이었구나.

그러나 우리는 아픈 일제의 역사를 청산하지 않고 독도 그대의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시인은 그대 독도에게 늘 죄인이었다.

2011 7*8

통권 58호

독립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 받고자 합니다.



10

- 04 권두언 _
5.24 조치 1년과 남북관계
| 조성우

- 06 광화문 어귀에서 _
한일 군사동맹 반대
| 김자동



19

- 10 독립운동 _
미래를 위해 누구의 생애를 가르칠 것인가
| 김도현

- 18 연간기획 _
동북항일연군 내 한인들의 활동
| 장세윤



20

- 27 특별기획 _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실체를 밝혀라
| 김삼웅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이두엽, 신명식, 신준수, 김지용, 이재승, 이학로, 이일선, 김봉현, 류동연

편집 · 디자인 | 동방기획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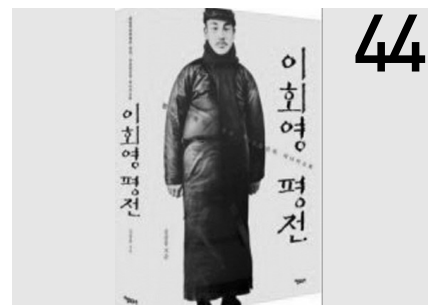
31 특집 _
대를 친다고 대쪽이라
| 김지용

38 독자투고 _
잊혀진 독립운동가 金宗伯을 찾아서
| 박관우

40 레지스탕스 영화읽기 _
영화 <인도차이나>, 식민지 역사의 불편한 기억
| 이두희

44 임정서가 _
이회영 평전

46 독립정신 이모저모



5.24 조치 1년과 남북관계



조성우
진보통합 시민회의 상임대표

지난 6월 20일 10시 국회귀빈식당에서 농민단체들과 대북지원 단체들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대북 쌀 지원과 인도적 지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5.24조치 이후 1년여, 남북 민간교류와 인도적 대북지원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있다. 더욱이 북의 '비밀접촉' 폭로 이후, 남북관계는 최소한의 '신통'마저 상실하고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한반도를 덮고 있는 짙은 먹구름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얼 어찌해야 하는가?

작년 3월 중순경까지 남북 간에 여러 차례 막후접촉이 있었음은 이제는 공개된 비밀이 되었다. 그러다가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이 터졌다. 북이 했다면 왜 그랬을까? 막후협상이 결렬되어서 그랬을까? 천안함을 공격할 정도의 치명적 결렬이었다면 북은 그때 '비밀접촉'을 터뜨려야 하지 않나? 아니 적어도 북의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성능이 뛰어나지도 않은 재래식 잠수함으로 세계 해전사에 길이 빛날 수 있는 참으로 대담하고 치밀한 작전을 성공시킨 셈인데 왜 스스로 내가 했다고 하질 않았을까? 바로 얼마 안있어 드러났듯이 연평도에 직접 포격을 가할 정도로 단호한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면 더욱 그렇다. 아무튼

북은 공식적으로 천안함 사건과 무관함을 천명하고 검열단(남쪽표현으로는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남쪽정부는 이미 국제조사단(그 전체 구성이 어찌되었던 건지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의 결론이 났다며, 연평도 앞바다에서 강도 높은 육해공군 합동훈련이란 무력시위로 북을 압박했다. 그리고 다시 연평도 포격사건이 터졌다. 남쪽은 제대로 된 응사조차 못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귀하디 귀한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다. 가슴이 미어터질 일이다. 천안함은 침몰했고 북은 안했다 하고 그러면 어찌 해야 했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경로를 택해야 했다. 졸속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북의 소행으로 규정짓고 이에 근거하여 정치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남쪽정부 발표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던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시키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립적인 나라 스웨덴 등과 남과 북으로 구성된 국제 조사단을 구성하여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가 수궁할 만한 규명을 했어야 했다. 그 결과 북의 소행이 분명하다면 마땅히 북은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그런 과정을 거쳤더라도 연평도 포격사건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무관하다는데, 바로 코앞에서 다분히 공격적인 대규모 군사훈련을 거듭한다면, 맥없는 나라가 아니어서 이를 끝까지 감내할 주권국가는 지구상에 아마 없을 것이다. 더욱이 '민족적 자존심'을 나라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북의 경우 그 대응은 거의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북의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예측 되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하는 말이다. 혹여 정치 군사적 압박에 못 이겨 북이 굴복하기를 기대했던 것일까? 만에 하나 그렇다면 그야말로 무식과 무능의 극치다. 이 지경이 될 줄 알고도 그랬다면, 그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민족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북은 전국토가 거의 요새화되어 있는 반면 남쪽은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하여 전쟁에는 취약하기 그지 없는 구조다. (예를 들면 북의 장사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가 끝나 있다.) 현대전의 특성상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어렵게 일궈놓은 평화와 공영의 성과들을 애써 부정하며 갈등을 극대화시키면서 전쟁을 각오해야 평화를 지킨다는 이명박 정부의 그야말로 호전적인 말과 행동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민족 전체의 안위를 뒤흔드는 범죄적 태도라는 말이다. 그러한 태도의 바탕에는 북을 압박해서 망하면 더욱 좋고 적어도 무릎이라도 꿇려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어두운 생각들이 깔려있다. 한반도에 드리운 먹구름의 상당부분은 이런 어두운 생각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 간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제1조 1항은 오랜 갈등과 분쟁을 겪고 다다른 결론이고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내다본 지혜였다.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길이 아니고, 가야만 할 외길이다.

이대로라면 이명박 정부 5년은 6.15이후 역사의 반동기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으로 보아선 무언가 바뀔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올해 광복절에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영, 자주적 통일을 바라는 모든 국민이 한데 모여 이명박 대통령이 더 이상 민족 앞에 죄인이 되질 않기를 기원하고 우리 스스로 행동에 나설 것을 다짐하고 결의하는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범국민대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

한일 군사동맹 반대

-기본 조약도 새 조약으로 대체할 것-



김 자 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금년 6월 22일은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된지 5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조약은 그 해 12월 18일부터 발효된 것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따른 4개 협정 및 25개 문서의 총칭이다. 4개 협정은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교법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소의 관계는 점차 경직화 되어 드디어 '냉전'의 상태로 들어갔다. 미국은 냉전 중 소련 및 공산권에 대한 '봉쇄' 정책을 폈다. 소련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었다. 50년에 발발된 한국전쟁은 '봉쇄'를 위한 미국의 결의와 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 강화 조약이 체결됨과 더불어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로부터 일본은 미국과의 적대관계가 청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련 및 중국에 대한 '봉쇄'를 수행하는 동맹국이 된 셈이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이러한 대공산권 봉쇄의 동맹국이 되기를 희망했으며 그 일환으로 한·일간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도록 종용했다. 그리하여 미·일 사이의 조약이 체결된 지 불과 1개월이 지난 51년 10월 21일 도쿄주재 연합국 최고사령부 외교국장의 알선으로 한·일간의 예비회담이 개최되어 이듬해 2월 15일부터 한일회담이 개시되었다. 두 나라사이의 첫 회담은 재산청구권과 어업문제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결렬되었다. 그 후 53년 4월의 제 2차 회담도 평

화선문제와 제일교포 강제퇴거 문제 등으로 다시 결렬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제 3차 회담은 일본 측의 수석대표인 구보다강이치로[久保田貫一]의 “일본의 35년간의 한국 통치는 한국근대화에 유익했다.”는 망언으로 개최 불과 15일 만에 중단되었다. 이런 발언은 비록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 치더라도 일본의 한국 강점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데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스스로를 ‘뉴라이트’ 라고 자처하는 집단에서도 구보다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이 집단에 속해있는 이른바 학자 중에는 역사학자가 전무한 것도 이들이 반민족적 행태가 역사에 대한 무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 집단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일부에서는 헌법에 명문화 되어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때부터 회담은 4년 이상 완전 중단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동안 한·미·일의 반공동맹의 형성을 희망한 미국은 계속

한국 측에 조속한 타결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왔다. 이승만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친미적이며 국내에서는 부일협력자들을 차별 없이 등용했으나 일본의 한국 침략사를 잊지는 않았으며 일본에 대하여는 불신하였다. 그리고 과거의 침략행위를 뉘우치지 않는 일본은 ‘사죄’나 ‘배상’ 등에 인색하여 접근이 힘들었다. 그런데 극동에서의 대공 봉쇄정책에 있어서 일본의 위치를 극히 중요시 한 미국은 한국의 양보를 희망했으며 이로 인하여 이승만에 대하여 점차 불쾌감을 갖게 된 것이다. 헌법을 무시하는 독재나 6.25전쟁 중의 민간인 학살 등은 다 묵과하는 미국이 일본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만은 용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57년의 예비회담을 거쳐 58년 4월에 재개된 한·일 제4차 회담은 60년 4월의 민주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됨으로 끝장이 났다.

그리고 60년 10월에 제 5차 회담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듬해 5월의 군사반란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장면정권이 무너지며 다시 중단되었다. 제 6차 회담은 61년 10월 군사정부집권한지 불과 5개월 후에 재개되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미·일 사이의 조약이 체결된 지 불과 1개월이 지난 51년 10월 21일 도쿄주재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외교국장의 알선으로 한·일간의 예비회담이 개최되어 이듬해 2월 15일부터 한일회담이 개시되었다.”

”

집권한 박정희 장군에 대하여 미국은 그가 과거에 공산당에 가입한 전력을 들쳐대며 불신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미국의 눈치를 살피게 만들려는 저의가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어쨌든 미국의 비위도 맞추며 청구권을 통하여 돈 맛 좀 보려는 의도가 합쳐져 이제 6차 한일회담은 보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런데도 당시 박 정권의 실세였던 김종필 중앙정치부장과 오히라마사요시[大平正芳] 일본의 상은 별도로 비밀 회담을 가져 여기서 그동안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대일청구

권, 평화선, 재일교포법적지위문제 등을 일관적으로 타결하며 '김·오히라 메모'를 교환했다. 그리고 돈 몇푼 얻어 쓰기 위하여 모든 것을 양보한 이 메모를 근거로 회담은 급속히 진전되었다. 이렇게 굴욕적인 한일기본조약의 임박해지자 국내에서는 반대여론이 들끓었으며 64년 3월 24일에는 대규모 학생시위가 일어났

“ 이 기본조약을 맺는데 있어서 일본이 불법으로 한국을 병탄하고 그 과정에서 반항하는 한일을 대량학살하고 점령 기간 중 계속 한인을 착취하고 심지어 사지로 내몰기까지 한 죄행에 대하여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 ”

다. 반대운동이 거세지면서 6월 3일 드디어 계엄령까지 내려지고 학생지도자 다수가 체포되어 일부는 실형까지 받았다. 이것은 후일 6.3항쟁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회담은 일시 중지되었다가 그해 12월 재개되어 제 7차 회담으로 기록된다. 이듬해 2월 일본외상이 방한하여 기본조약의 가조인을 했으며 6월 22일 도쿄의 일본총리 관저에서 기본조약과 4개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됐다.

굴욕적 조약체결에 대한 항의 시위가 확산되어 8월 23일에는 군대까지 동원되었으며 26일에는 위수령이 발동됐다. 을사늑약과 한일 합병 안은 일본군의 군성포위등의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강요된 반면 한일기본조약은 계엄령과 위수령 밑에서 군이 민간에게 무력행사를 하면서 맺어진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양국 간의 외교·영사관계 개설. 제2조 1910년 8월 22일 이전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은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다. 제3조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이 확인된다. 등 6개조로

되었다. 함께 조인된 ‘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는 일본이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장기저리 정부차관 및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을 공여하기로 합의했으며, 그리고 ‘어업에 관한 협정’에서는 양국연안 12해리의 전관수역설정을 명시했다.

이 기본조약을 맺는데 있어서 일본이 불법으로 한국을 병탄하고 그 과정에서 반항하는 한인을 대량학살하고 점령 기간 중 계속 한인을 착취하고 심지어 사지로 내몰기까지 한 죄행에 대하여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 오직 과거의 조약이 “이미(already)” 무효라고 선언한 것으로 모든 과거를 슬쩍 넘기려 했다. 그런데 “이미”라는 뜻에 대하여 사실 양측은 서로 달리 해석을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그 당시부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측은 조인 때부터 무효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견해대립은 조인당시 이미 서로 알고 있으나 덮어두기로 야합한 것이 명백하다. 전자의 주장대로라면 합병조약 등의 불법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권으로 받는 돈도 경제협력이 아닌 배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주장은 문구에 대한 일본 측의 주장이 더 해석상 유리하다고 보아야 하겠다.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문의 ‘already’도 원천 무효로 해석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당연히 배상으로 받아 내야 할 자금도 경제협력과 독립축하금등의 명목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후일 다른 동남아 국가에 제공된 ‘배상금’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결여되는 적은 금액이었다.

‘어업에 관한 협정’에서는 평화선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면서 일본어선의 남획으로 해양자원의 보존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일제 강점기 35년 사이에 강탈당한 문화재를 일본의 소유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유무상 5억 달러를 받는 대가로 일본의 식민 지배로 생명과 재산과 노동력을 약탈당한 각 개인들의 배상받을 길이 봉쇄당했다. 태평양 전쟁 중 징병·징용으로 강제 동원된 희생자들의 유해봉환과 미귀환 동포의 송환 책임도 묻지 못하게 됐다. 정신대에 강제 동원되어 심지어 성노예까지 된 개인들에 대한 배상 등 모든 책임도 추궁 못하도록 만들었다. 독도에 대하여도 조약에 명시하지 않으므로 분쟁의 소지를 만들었다.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정부로 인정한다는 문구도 남·북한 공히 국제적 지위를 얻으므로 헛소리로만 남게 되었다.

불법으로 성립된 군사집단이 맺은 이 굴욕적인 조약도 호혜의 조건하에 정당한 사죄와 배상의 지불로 재협상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냉전도 끝나고 이미 없어진 적대적인 공산권도 없어진 이 시점에 현 정부와 여전히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는 일본 정부사이에 군사동맹을 위한 야합이 진행되고 있음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우리국민은 이러한 야합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어 51년 전에 맺은 이른바 기본조약이 새로운 조약으로 대치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㉞

미래를 위해 누구의 생애를 가르칠 것인가?

김도현 · 장준하기념사업회 부회장



▲ 장준하 선생

장준하 선생에 대해 생각을 하려니 요즘 시끄러운 ‘한국현대사 논쟁’에 생각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의 요지는 최근 20여 년 동안 ‘문화권력’의 영향아래 쓰인 대한민국현대사의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이승만 ·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폄하 비판에

왜곡이 심하니 이를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른 대로 말하자면 이승만 ·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문화권력 뿐 아니라 직접적 정치권력의 힘으로 이루어진 역사의 왜곡, 아니 말살과 조작보다 더 심한 예는 동서고금에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현대사 바로잡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점을 깊이 명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왜곡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

을 분명히 말합니다.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대화로 보고 과거를 들쭉시기보다 현재의 성취에 맞추자는 것은 좋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에도 맞추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장 선생의 생애를 이러한 생각아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준하는 어떤 분입니까?

장 선생은 1918년 평북삭주에서 아버지 장석인 목사와 어머니 김정인 여사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장 선생과 나이 차이가 많지 않고, 교사와 목사생활로 외지에 있어 조부 장윤희 선생과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조부는 과거를 포기하고 사학을 세워 교육 사업을 일찍 시작한 선각자요 또 배일(排日) 사상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압록강 너머 만주와 자주 국내에까지 들어오는 항일유격투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았고, 평양 정주 선천은 안창호, 이승훈, 양전백 선생이 기독교와 교육을 통해 민족정신을 고취해온 지역이었습니다. 아버지 장 목사는 3.1운동 때 태극기와 선언문을 만들어 나누어 주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항일목사였습니다. 장 선생은 아버지를 따라 평양의 승실중학과 선천의 신성중학을 옮겨다니며 중학을 마칩니다. 이렇듯 선생의 고향과 성장시절을 보낸 지역적 환경, 조부 부친 교육 환경 모두가 항일독립운동, 그리고 헌신적 투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선생은 잠시 정주의 신안소학교에서 교사를 합니다. 당시 초등학교 교사 생활은 지금과는 달리 단순한 직업교사가 아니라 학생과 지역사회주민에게 계몽적 선구자의 사명감을 의식해야하는 일이었습니다. 장 선생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러한 사명감을 청년의 정열로 실천하여 나무를 잘라내고 학교교사와 운동장을 만들고 학생들 머리를 잘라 단정하고 활동적으로 만드는 등 개혁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재학시절에 이미 당시 신문사가 주최한 '브나로드(계몽운동)'에 참여하여 방학이면 고향에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이곳에서 부인 김희숙 여사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후일 필자 등과 주석에서 '섬마을 선생'이라는 유행가를 하는 것을 보면 선생 자신이 이때의 기억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 선생은 그 뒤 교사 생활을 접고, 문익환, 문동환 목사 등이 재학했던 일본신학교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 장 목사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오늘날 부와 명예를 누



▲ 장준하(왼쪽)26세,1945년8월 중국산동성 유현 왼쪽부터 노농서,김준엽,장준하

리는 대형교회가 없던 시절에 신학교를 선택한 것은 그 생애의 목적을 개인적 부, 명예, 권력과는 무관한 삶으로 삼기로 진작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제의 학도병지원장요가 심해지자 가족에 미치는 탄압과 일제하의 암흑에서 탈출하여 광복운동에 투신할 결심을 하고 자원입대, 일군탈출, 광복군 참여를 실행합니다. 장 선생은 일본군 생활을 하면서도 한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생손을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수술을 해서 “처음 보는 독한 놈” 소리를 듣습니다. 1944년 7월 부인과 약속한 일군탈출의 암호 성경의 ‘야곱의 돌베게’를 엽서로 띄우고 마침내 일군을 탈출하여 폭염과 혹한 속에서 중국 대륙 6천리를 걸어 중경 임시정부를 찾아 간 것은 장선생의 회고록 ‘돌베게’와 얼마 전 타계한 김준엽 교수의 회고록 ‘장정’에 감동적으로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장 선생이 수류탄이 터지는 적의 기습가운데서도 동료의 신발을 챙겨 나오고 배고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취사반장’으로 보인 헌신과 침착함이 김 교수가 일생을 신뢰할 동지로 만들었다고 회고합니다. 1944년은 일제의 광기와 발악이 최고에 이르렀을 때로, 정말 목숨을 걸지 않고는 일군을 탈출 광복군에 가담할 수 없을 때입니다.

박정희가 일제의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여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일제의 괴뢰 만주의 천황 부의에게서 금시계를 상으로 타고 다시 일본육사에 진학하여 3

등으로 육군 대신상을 타고 만주군으로 항일군과 싸운 것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삶입니다.

장선생 일행의 광복군 참여는 참으로 의미가 큼니다. 당시 독립운동은 가혹한 일제의 탄압으로 국내에서는 거의 전멸되었고, 항일유격전을 하던 김일성도 소련으로 갔고, 중국에서 독립동맹 조선의용군이 활약할 뿐이었습니다.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로서는 윤봉길의사 의거 이후 새로운 활력의 전기가 절실히 필요한 때였습니다. 백범이 “호박이 닳아져 굴러들어왔다”고 할 만큼 임시정부나 우리 독립운동으로는 정말 청신한 새로운 전기를 만든 일이었습니다. 김구주석과 장준하의 환영사와 답사는 노혁명가들과 청년광복군에게 함께 눈물의 감격을 주었습니다.

광복군 생활 중 장 선생은 ‘등불’, ‘제단’이란 제목으로 잡지를 손으로 쓰거나 등사를 해서 만듭니다. 오늘까지 계속되어 1천명이 넘는 장 선생 장정 따라하기 참가자들의 이름이 ‘등불’ 이고, 후일 제가 저의 백부에게서 문귀를 얻어와 선생께 드려서 선생이 긴급조치 아래서 개헌운동을 계속하겠다고 외신기자에게 말하면서 보여주어 구속의 직접 실마리가 된 글씨가 ‘일주명창(一柱明窓)’이니 등불은 선생과 정말 인연이 있나봅니다.

중경 임시정부는 장선생 일행을 주요자원으로 삼아 미국 OSS와 연합하여 국내 침투특수작전을 준비를 마치고 국내 정진을 기다립니다. 이 와중에 45년 8월 일제 항복의 소식을 들은 백범이 “내게는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할 만큼 이범석, 장 선생 등의 한국침투작전에 건 우리 독립운동의 기대는 컸습니다. 이 작전이 1개월만이라도 미리 실행되었다면 해방 뒤 건국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 독립운동세력의 주도력이 훨씬 달라졌을 것이고, 국내 친일파의 득세, 미군과 소련군의 일방적 군정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임시정부와 미국 OSS와의 연합작전에 장 선생 등의 참여를 두고 일부 철없는 속류교조주의자들이 ‘미국정보기관과 결합’이라는 평을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의 파시즘타도에 미·소 등 전 세계 반전체주의 연합전선에 비록 임시정부가 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정부로 참여한 기본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해방이 되자 장 선생은 임시정부 김구 주석의 비서로 함께 귀국비행기에 오르고 귀국방송연설을 작성했고, 백범의 바쁜 해방정국일정 중 비서직을 수행합니다. 장 선생은 해방정국의 핵심에서 열정과 혼란을 목격합니다.

장 선생은 다시 한국신학대학으로 복학하여 못다한 학업을 이어갑니다. 이 역시 비범한 일입니다. 당시 “중국에서 왔다하면 장군이요 미국에서 왔다하면 박사”라는 말처럼 온 세상이 시끄럽던 때입니다. 또한 좌우의 정당과 정치활동도 새로운 국가수립을 위한 이념과 활동에의 참여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권력에 대한 야망일 수도 있었습니다. 일군(日軍)참여자들이 광복군으로 모자를 바꾸어 쓴 뒤 다시 국군이 되고 친일파들은 다시 미군정과 정부에 가담했습니다.

장 선생은 6.25 중에 어머니를 잃는 슬픔을 겪습니다. 피난지 부산에서 당시 문교장관이던 동향의 선배 백낙준을 만나 월간지 “사상(思想)”을 창간하고, 다시 적수공권으로 수레를 끌고 편집 교정 판매 모두를 혼자하면서 “사상계(思想界)”로 바꾸어 한국잡지사의 기적을 만듭니다. 당시 최대일간지의 판매부수가 10만부가 못될 때 10만부를 육박하는 월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잡지의 성공기적에 그치지 않고 이 나라의 교양 지식 민주의식 등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침내 그 결과로 성장하고 자각한 민주의식은 4.19혁명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장 선생은 4.19민권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간곡한 청을 외면할 수 없고 책임의 일단을 느껴 반관반민의 ‘국토건설본부’의 기획부장을 맡습니다. 본부장은 장면 총리였는데 2천명의 대졸자를 국토건설요원으로 공개채용하여 이들을 전국농어촌에 배치하여 일정기간 봉사교육한 뒤 군수 등으로 투입시킨다는 의욕적 농어촌 근대화계획을 세웠습니다. 5.16이 나지 않았다면 농어촌 근대화와 함께하는 산업화혁명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김종필도 하극상사건으로 군에서 나온 뒤 여기에 이력서를 넣었다고 합니다. 물론 장면 민주당정권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성급한 욕구의 분출은 혼란으로 비쳐지는 가운데, 일부 군인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국군조직과 무기와 병참을 역용하여 반란을 음모하고 5.16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장 선생은 새로운 투쟁과업으로 밀려들어 갑니다. ‘사상계’는 ‘군정 어서 물러가라’라고 제목을 달고 군정 연장반대 특집을 냅니다. 장 선생은 부패언론인이라고 정쟁법으로 묶이고 악명 높은 정보부의 공작으로 사상계는 ‘반품(서점이 잡지를 팔지 않고 있다가 본사에 되돌려 보내기)’으로 빗더미에 안게 됩니다. 장 선생은 직접 대정부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한일협정반대 밀수규탄 3선개헌반대를 초강경으로 주장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박정희만

은 안된다.”고 외쳤습니다. 민족독립운동에 총을 겨누는 관동군 대위출신으로서 일본군괴뢰 만군 대위 출신으로 건국을 반대한 남로당에 가입했다가 동료를 밀고 해서 살아났고 국군복을 받으면서 국군을 이용해 반란을 한 사람이기에 대한민국 사람이 모두 찬성해도 장 선생은 차마 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복절날 당국에 연행되어 해가 진 뒤에야 원효로 함석헌 선생 덕으로 돌아온 장 선생이 “광복군 대위였던 내가 광복절날 만군에게 끌려갔다.” 하던 눈빛을 저는 두고 두고 잊을 수 없습니다.

종신독재집권을 향해 질주하는 박정권에 대한 장 선생의 투쟁은 도가 더해 갈 수밖에 없었지만, 71년 소위 7.4성명이 나오고 장 선생의 박정권에 대한 눈이 잠시나마 기대를 걸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그 저의는 의심스러웠지만 장 선생처럼 인간의 선의를 믿고 민족의 독립통일에 일생을 바쳐온 사람은 이 성명이 통일을 향한 전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간곡한 기대는 박정권의 유신에 의해 배신되고 장 선생은 최후의 목숨을 건 반유신 투쟁을 전개합니다. 71년 저희들이 주최한 민족학교의 항일문학의 밤 행사장에서 장 선생은 유신헌법개정 백만인 서명운동유인물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초 이른바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되고 그 1호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함께 구속됩니다. 그 직전 상봉동 선생덕에 인사갔던 저는 자제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며 나오는 선생을 보았습니다. 선생은 느닷없이 차를 세우더니 차에 준비했던 나무 몽둥이를 들고 뒤에 미행하던 차 앞으로 다가 갔습니다. 이 무모한 저항, 국가권력과 돈과 정보기간과 법이란 이름의 온갖 장치를 가진 정권에 대한 이 저항은 너무나 원시적이고 나약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것이 정말 맨손으로 목숨을 걸고 하는 투쟁임을 오히려 권력은 알 것입니다.

저는 겁도 좀 나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개헌을 하라는 것은 박정희씨에게 죽으라는 말인데, 박정희씨도 선생님을 노리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린 나이의 저로서는 죽는 것은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유신 뒤 그때까지 박정희 정권에 비판적이었다가 유신 지지방송을 한 신상초 중앙일보논설위원을 만나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박대통령이 나에게 ‘생방송인가 편집한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녹음 편집한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말 그대로 입니까?’ 라고 물어 ‘일부 잘랐습니다.’ 라고 했더니 ‘뭘 잘랐나요?’ 라고 해서 ‘나는 유신헌법을 두고 학자들이 프랑스의 드골헌법이나 5공화국헌법과 같



▲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대법원의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장준하가 1974년 12월 형집행정지로 출감해 병원에 입원해 있던 모습.

다고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 헌법은 박정희헌법이다 박정희라는 탁월한 영도자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성립하는 헌법이다. 라고 한 대목을 잘랐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놈들 참 무식하게 잘랐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유신입니다. 최근 박대통령 측근이던 유혁인씨의 공개된 회고를 보니 “70년대 말 유신 체제의 재활성화방안연구라

는 작업을 했는데, 70년대 말 체제내부의 강경론이 폭주하고 예외 없이 대통령 앞에서는 이에 동조했다. 당시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헌법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미리 개헌의 조짐을 보여주면 권력누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권력 스스로에 의한 유신의 해체는 바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는 박정희라는 자연인의 영구집권체제로 그 자연적 생의 종식 외에는 종식될 수 없는 체제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여 반유신의 핵은 장준하 선생이었습니다. 정치인 학자 종교인 학생 근로자를 엮을 수 있는 자연인은 당시로서는 많지 않았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스스로 ‘등불’이 되어, 이 ‘제단’에 던진 것입니다. 이 등불은 장준하 선생 주변의 학자 언론인 종교인 법률가 예술인 학생 근로자 양심적 군인들에게 까지 광범하게 번져 갔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87년 6월 항쟁에 이르러서야 독재는 극복되었습니다.

물론 통일의 길은 아직도 미로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특정 집권자와 과도히 연결시키는 것은 냉정히 반성할 일입니다. 설사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해도 오늘 다시 쿠데타 18년 독재의 가혹한 노동운동의 탄압 기본권의 억압 부정선거 등등이 가능할 것인가?

정말 한국 현대사가 현재와 미래를 위해 과거와 대화해야한다면 무지한 독재찬양은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장준하 선생을 일러 ‘무외(無畏-겁이 없음)의 덕을 가졌다’ 고 했습니다. 문익환 목사는 3.1선언사건 법정에서 “죽은 장준하대신 싸운다.”고 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애국자”라고 했습니다. 일전 타계한 장준하 선생이 중국에서 일군을 탈출하여 광복군으로 만나 일생의 지기가 된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은 장준하 선생을 “애국자 혁명가 인격자 언론인이요 청빈을 자랑삼고 술수를 배척했다.” 장준하 선생 영전에서 말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탄압에 정말 겁이 없었던 사람은 장준하, 윤보선, 함석헌 밖에 없었다고 당시를 직접 겪은 이들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까?

민족과 조국의 독립, 헌신, 용기, 자유, 청빈.

조국을 침탈한 일본에의 충성, 반란, 헌법의 파괴, 독재, 정경유착.

장준하 선생이 71년 선생의 20대 시절에 일군을 탈출하여 광복군에 들어가고, 해방을 맞으며 백범을 모시고 겪은 2년을 기록한 ‘돌베개’를 펴내며 그 머리말에서 “오늘도 잠자리가 편치 못하다.”라고 했는데 뜻 있는 이라면 이처럼 오늘 날의 현대사 논란을 보며 편한 잠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 입니다. (㉠)

동북항일연군 내 한인들의 활동



장 세 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동북항일연군이란?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은 1931~32년 사이에 일본의 중국 동북지방 침략에 맞서기 위해 중국공산당 주도로 조직된 항일유격대와 1933~36년 전반기까지 활동한 동북인민혁명군을 모체로 하여 1936년 중반에 성립한 중국 동북지역 항일연합부대의 총칭이다. '동북항일연합군'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항일세력은 1940년을 고비로 하여 쇠퇴하고 일부 세력은 소련으로 건너가 후일을 도모하였다.

이제 이 부대의 창건과 발전, 활약에 크게 기여한 재만한인들의 활동을 간단히 개관코자 한다.

1) 항일유격대와 재만한인(在滿韓人)

1930년 '간도 5·30폭동'을 전후하여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 해체되었다. 이 무렵 韓人 당원들은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원회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연변 및 남만주 지방에서 한인 사회주의운동이 급격

히 고조되었다. 또 '9·18사변' 직후인 1931년 10월부터 1933년까지 중국공산당 만주조직 주도하에 동만주 4개현(연길·화룡·왕청·훈춘)의 항일유격대가 창건되었다¹⁾ 이후 연변지역에서는 소비에트와 인민정부, 항일유격대가 당·정·군의 형식으로 상당기간 정립하며 중국공산당계 무장투쟁을 주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일유격대를 바탕으로 1933년 9월 동북인민혁명군 1군 독립사가 건립되고, 이듬해 3월 2군 독립사가 세워졌다. 물론 여기에 많은 한인대원들이 참가하여 크게 활약했다. 또 1936년 초부터 동북항일연군이 제1군부터 11군까지 조직되었다. 여기에도 다수의 한인들이 참가하여 항일투쟁과 각종 사회운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 이홍광석상

2) 동북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의 형성

중국공산당 반석현위원회와 남만유격대는 항일투쟁이 점차 격화되고 유격대의 역량이 성숙함에 따라 1933년 8월 남만유격구와 유격대 대표자 회의를 열어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 독립사를 건립키로 했다. 그리하여 일제의 만주침략 2주년이 되는 그 해 9월 18일 남만주 반석에서 이 부대의 성립을 정식으로 선포했다. 이 무장세력은 만주에서 가장 먼저 결성된 중공당 계통의 정규군인 셈이었다. 때문에 성립선언과 정강, 사병우대 조례, 각종 선언문 등을 발표하여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 문건 가운데 한국 독립(해방)이나 혁명의 지원을 직접 표방한 내용은 없었다. 사실 1931년 5월 중공당 만주성위원회는 '만주 한국민족문제 결의안'을 통과시켜 한국혁명을 원조해야 한다고 했지만, 1930년대 초의 좌경화된 분위기하에서 이러한 내용은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제1군 독립사는 1934년 11월에 2개 사로 분화 발전하였다.

창건 당시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 독립사는 300여명 정도 규모였는데, 사장(師長)겸 정치위원은 한족(漢族) 양정우(楊靖宇)였다. 반면 참모장 이홍광(李紅光)과 소년영장 박호(朴浩), 3단 단장 한호(韓浩) 등 주요 간부가 한인이었다. 이 조직의 1/3가량은 한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군 독립사는 1933년 말에서 이듬해 초까지 많은 전투를 치렀으나, 이 가운데 유하현 삼원보(三源浦) 공략전과 양수하자(凉水河子), 팔도강(八

1) 장세운, 「만주지역 독립군의 무장투쟁」, 『한국사』 50, 국사편찬위원회, 2001, 346~349쪽.



▲ 압록강상류혜산

道江) 전투 등이 유명하다. 특히 1935년 2월 13일 새벽 이흥광이 200여명의 병력을 이끌고 평안북도 후창군 동흥읍을 습격한 전투는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킨 국내 진입작전으로 유명했다.²⁾ 이는 1930년대 만주 항일무장투쟁 세력 최초의 대규모 국내진입작전이라 할 수 있었다.

한편 1934년 동만에서 한인 주진(朱鎭)을 사장으로 성립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는 중국 연변지역의 안도현과 왕청현 일대에서 한 해 동안 900여회의 전투를 치르며 유격근거지를 방

어하였다. 이른바 일제의 ‘제3기 치안숙정계획’을 무산시킨 것이다. 2군 독립사는 1,200여명의 병력과 980여정의 총을 갖고 있었는데, 그 병력의 2/3가 한인이었다. 따라서 사실상 이 항일부대는 조선혁명군이나 한국독립군과 같은 민족주의계 독립군과 이념을 약간 달리할 뿐, 일제타도라는 목표와 그를 위한 역할의 수행은 비슷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중공당 반석현위원회는 1934년 3월경 신빈일대에서 강고한 세력을 형성하며 완강히 일제와 싸우고 있던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군인 조선혁명군과 국민부에 사람을 파견하여 병사들을 중심으로 한 연대공작을 진행하라고 1군에 지시했고,³⁾ 이후 양 부대는 일정한 연대를 모색하기도 했다.

북만주의 밀산(密山)에서는 1934년 3월 40여명의 밀산 반일유격대가 조직되었는데, 한인들이 중심이 되었다. 이 유격대는 그 해 9월 중국의용군과 연합하여 동북항일동맹군 제4군으로 편성되었다. 또 1932~33년경 탕원현(湯原縣)에서 발족한 탕원유격대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여러차례 전투를 거치며 그 대원이 600여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이 유격대는 1936년 초 주변의 자위단·경찰 등을 흡수하여 동북인민혁명군 제6군으로 편제되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남만지방을 활동기반으로 하는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과 동만지방을 근거로 하는 2군은 한인이 주력을 이루었고, 사실상 이 시기 중공당계 산하 부대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1930년대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에서 재만 한인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투쟁은 많은 어려움을 수반했다. 더욱이 1933년에서 1935년 사이에 일제는 자체의 무력과 괴뢰 만주국 군경, 관헌을 동원하여 혹심한 탄압을 자행했다. 이에 따라 동북인민혁명군은 적의 포위공격을 면하기 위해 근거지를 벗어

2) 『조선일보』 1935년 2월 15일자 참조 요망.

3) 『中共磐石中心縣委員會給人民革命軍第1軍獨立師全體黨·團同志的信』,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集』 甲 36, 195쪽.

나 남만과 북만의 드넓은 평야지대로 진출하여 유격전을 벌이는 전술을 모색하게 되었다.

1935년 8월 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민정부군의 공격을 받고 쫓겨가고 있던 도중에 소위 '8·1 선언'을 발표하고 내전중지와 거국적 국방정부의 구성을 제안했다. 또 이듬해 12월 장학량(張學良)이 장개석(蔣介石)을 구금하는 '서안사변(西安事變)'이 발생하여 중국 관내에서 제2차 국공합작이 성사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8·1선언은 항일민족통일전선의 결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었는데, 각 당파와 민족, 모든 계층을 망라한 항일연합군의 조직을 명시했다. 이 선언에 따라 중국공산당 만주조직은 1936년 1월 회의를 소집하고 각 항일부대를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으로 재편성키로 결정했다. 이리하여 종래의 동북인민혁명군과 계통을 달리하는 여러 항일부대가 결집되고 중국공산당 만주조직이 영도하는 동북항일연군이 제1군부터 11군까지 결성된다.

이후 중국 동북지역(만주) 항일무장투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중공당 만주조직은 항일투쟁을 위해 각계 각층과 연대하는 것은 물론, 재만한인들의 조국광복운동 직접원조와 자치구 건설, 한인을 위한 항일전쟁의 원조를 결의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인으로만 조직된 독립부대의 창설도 고려되었지만, 활동상의 애로를 들어 실현되지 않았다. 동북항일연군 가운데 한인이 많았던 1군과 2군, 특히 2군은 한 중 양민족의 연합을 실현한 '독립군'이라고 볼 수 있는 성격이 강했다. 이 사실은 3개 사(師)와 교도대, 기타 연계 세력을 합쳐 2천여명으로 추정되던 동북항일연군 제2군의 경우 절반 가량이 한인이었고, 특히 김일성(金日成)이 이끄는 제3사 병력의 대부분이 한인이었다는 점으로 뒷받침된다.⁴⁾

그러나 일제의 토벌이 강화되자 동북항일연군 1군과 2군은 1936년 7월 통합되어 양정우를 총사령으로 하는 제1로군으로 재편성되었다. 이 때 제2군 1·2·3사는 각각 4·5·6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가운데 한인이 많은 6사(사장 김일성)와 4사는 유격전을 전개하면서 백두산 일대로 진격하여 유격구를 건설하였다. 그 뒤부터 장백현(長白縣) 등 백두산 일대는 1940년경까지 재만한인 항일무장투쟁의 주요 중심지가 되었고, 항일민족통일전선 조직을 표방하며 조직된 '재만한인조국광복회(在滿韓人祖國光復會)' 건설 및 국내 진입작전의 근거지가 되었다.⁵⁾ 특히 6사는 1937년 6월 80여명의 병력으로 함경남도 갑산군 보천보(普天堡)를 기습하여 일제 통치기관을 파괴하는 등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전투 이후 동북항일연군내 한인부대의 활약이 국내 대중들에게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조국광복회의 조직이 일제에 탄로되어 붕괴되는 손실을 초래했고, 일제 군정의 집요한 추격을 촉진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했다.

4) 강만길, 『고쳐쓴 한국현대사』, 103쪽.

5) 「대담 : 중국 연변, 민족해방운동사 연구의 고민과 과제, 『역사비평』 1993년 겨울호, 273쪽.

3) 동북항일연군과 재만한인의 활약

1936·7년경 동북항일연군은 동·남·북만 등 각지에서 큰 세력을 이루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물론 재만한인들도 여기에 대거 참가하여 많은 활약을 하고 있었다. 이 무렵의 주요 한인 간부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⁶⁾

<표 1> 1936·7년경 동북항일연군내 주요 한인 간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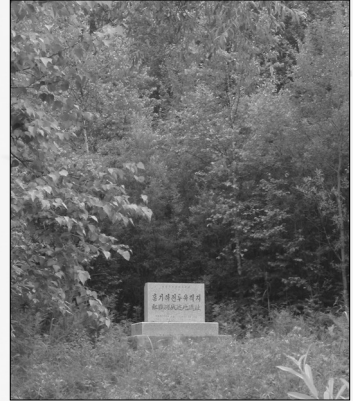
부대		결성날짜	주요 한인 직책과 명단
제1로군	1군	1936.7	참모장 안광훈(安光勳) 1사 참모장 이민환(李敏煥) 2사 참모장 이희민(李希敏) 이흥소(李興紹), 정치부 주임 전광(全光, 본명 오성륜), 8단장 현기창(玄基昌) 3사 정치부 주임 유만희(柳萬熙)
	2군	1936.3	정치부 주임 전광, 4사 사장 안봉학(安鳳學), 참모장 박득범(朴得範), 1단장 최현(崔賢), 정치위원 임수산(林水山) 6사 사장 김일성, 7단장 김주현(金周賢), 정치위원 홍범(洪範) 김재범(金在範), 독립려 1단장 최춘국(崔春國)
제2로군	4군	1936.4	정치부 주임 황옥청(黃玉淸), 정치주임 강산(康山), 2사 부사장겸 4단장 이학복(李學福), 정치부 주임 최영화(崔榮華), 참모장 피용건(崔庸建), 4사 정치부 주임 박덕산(朴德山)
	5군	1936.2	2사 4단 정치위원 김광협(金光俠), 5단 정치위원 박동화(朴東和) 3사 8단 정치위원 강신태(姜信泰), 경위려 1단 정치위원 강신일(姜信一)
	7군	1936.11	대리군장 최용건, 군장 이학복, 군 당 위원회 집행위원 김철우(金鐵宇) 특별위원 김품삼(金品三) 1사 정치위원 이일평(李兪平), 3단장 김창해(金昌海) 2사 참모장 김탁(金鐸), 4사장 김세창(金世昌)
	8군	1937.7	1사 정치위원 및 3사 정치부 주임 김근(金根)
제3로군	3군	1936.8	군장 허형식(許亨植), 정치부 주임 김책(金策)
	9군	1937.1	정치부 주임 허형식
	11군	1937.10	정치부 주임 김정국(金正國)

1938년경 동북항일연군의 병력은 1,850명 정도였다. 여기에는 중국공산당 계통 직속부대 외에도 다수의 각종 항일부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상당수의 대원이 희생되었고, 일제의 탄압과 회유공작이 극심해 짐에 따라 차츰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의지가 굳지 못한 일

6)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 연구(1925~40)」,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6, 392쪽.

부 참가자들이 변절하거나 도주·투항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곤경에 직면하여 항일연군 제1로군은 경위려(警衛旅)와 3개 방면군(方面軍)으로 편제를 바꾸어 무장투쟁을 계속했다.

이 가운데 4사와 5사가 통합되어 편성된 제3방면군은 60%정도의 대원이 한인이었고, 역시 종래의 제6사가 개편된 제2방면군은 대부분의 구성원이 한인이었다.⁷⁾ 이 부대는 남만주와 백두산 일대에서 유격전을 전개하며 적에게 큰 타격을 가하였다. 남만주의 조선혁명군이 1937년 초·중반 일제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고, 결국 1938년 초 동북항일연군에 편입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인이 다수를 이루는 이 시기의 항일연군 제2·3방면군은 사실상 독립군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은 물론 중국인들도 가끔 이 부대를 ‘조선인민혁명군’이나 ‘조선혁명군’으로 부르기도 하였다.⁸⁾



▲ 홍기하전투기념비

항일연군 제1로군 6사의 보천보 진입전투를 계기로 일제는 한반도 북동부 지역에 대한 대대적 수색작전을 벌여 소위 두차례의 ‘혜산사건’을 빚어내면서 동북항일연군 및 조국광복회 관계자 739명을 검거하는 대탄압을 벌였다.⁹⁾ 이 때문에 항일연군과 조국광복회에 관계된 인사들이 대거 체포되고 산하 조직의 대부분이 와해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항일연군 제2·3방면군은 함경북도 무산 진입전투(1939년 5월), 일본군과 만주국군 100여명을 섬멸한 안도현 대사하(大沙河) 전투(같은 해 8월), 악명높던 ‘마에다(前田) 토벌대’ 120여명을 궤멸시킨 화룡현 홍기하(紅旗河) 전투(1940년 3월) 등을 전개하여 최후단계까지 일제 군경에 큰 손실을 주었다. 하지만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에 대한 일본군경 및 만주국군의 토벌도 강화되어 마침내 1940년 2월 1로군 사령관 양정우가 전사하고 만주지역의 잔존 항일연군도 거의 소멸되고 말았다. 그 뒤 만주지방에서 조직적 군사활동이 어려워진 잔존 동북항일연군은 1940년 겨울부터 동 북만을 거쳐 소련(연해주)으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소련측의 도움을 받아 남야영(南野營)과 북야영으로 불리우는 거점조직을 세웠으나, 1942년 7월 동북항일연군 교도려로 편제되었다. 교도려는 소련군 산하 국제홍군 제88특별여단이라고도 했다. 이 무렵 이들의 전체 대원은 600여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한인은 150여명이 있었다.¹⁰⁾

7) 강만길, 『고쳐쓴 한국현대사』, 104쪽.

8) 于偉, 「三年來東北義勇軍鬪爭的總檢閱」, 『東方雜誌』 32권 6호(1935년 3월), 58쪽 및 『重慶大公報』 1939년 8월 3일자; 추헌수 편, 『자료 한국독립운동』 4(하), 1975, 연세대출판부, 1594~1596쪽.

9) 체포된 주요인사들에 대한 판결문 내용은 「惠山事件 判決書」, 『朝鮮統治史料』 6권, 金正柱 編(東京: 韓國史料研究所, 1970), 543~841쪽 참조.

10) 와다 하루끼(이종석 옮김),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창작과 비평사, 1992, 271·272·277쪽; 『고쳐쓴 한국현대사』, 104쪽.

1945년 8월 초 소련의 대일선전포고로 소·일전쟁이 발발하자 교도려의 일부 한인들은 작전에 참가했으나,¹¹⁾ 대다수의 한인 대원들은 직접 독립전쟁(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해 9월경 소련군을 따라 귀국하였다.

2.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동북항일연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동북항일연군은 직접적 관계는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김구는 후일 동북항일연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정세로 말하면 동북 3성 방면에 우리 독립군이 벌써 자취를 감추었을 터이나, 신흥학교 시절 이후 3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오히려 김일성(金一聲 : 북한 김일성 주석을 지칭) 등 무장부대가 의연히 산악지대에 의거하여 엄존하고 있다. 이들이 압록·두만을 넘나들며 왜병과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용군과 연합작전을 하고 러시아의 후원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상유지를 하는 정세라, 관내 임시정부 방면과의 연락은 극히 곤란하게 되었다.”¹²⁾

이러한 김구의 회고내용을 검토해보면 김구는 동북항일연군의 존재와 김일성 등 재만한인의 활동상을 잘 알고 있었고, 일정한 연계를 도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일성 등 동북항일연군내 재만한인 무장세력의 항일투쟁 활동은 미국에서 재미교포들이 발행하고 있던 『신한민보』에도 소개된 적이 있었다. 그만큼 다수 재만한인들의 활동상은 이념에 구애되지 않고 일본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해서 싸우는 ‘독립군’ 적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었던 것이다.

1944년 8월 여운형 주도로 건립된 조선건국동맹은 당시 중국 중경(重慶)에서 활동하고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 연안(延安)에서 활동하던 조선독립동맹, 중국동북(만주)에서 활동하던 동북항일연군 세력과 연계를 도모했다. 실제로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장건상(張建相)이 임시정부와 독립동맹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연안에 파견되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11) 교도려 소속 일부 한국인들의 참전 사실은 일본인의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증명된다.

“(1945년) 8월 8일 오후 11시 50분 조선인 一團 약 80명이 소련군과 함께 쾌속정을 타고 두만강을 건너 토리에 來襲했다. 이곳은 소련 영토를 指呼之間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먼저 토리의 경찰관 주재소가 습격받았다. 소련군은 토리 주재소의 경찰관과 교전하여 경계중인 金某(○)을 제외 경관 2명을 사살하고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東京 : 巖南堂書店, 1964, 29쪽)

12) 김구(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8, 315쪽.

전남 보성출신의 윤윤기는 건국동맹의 연락원으로서 위의 세 항일세력의 연합을 모색하기 위해 1944년 경 국내외를 분주히 오가며 노력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해방 직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화북조선독립동맹, 만주의 동북항일연군 내 한인들이 식민지 조선 내의 조선건국동맹 등과 일정한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간의 연합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해외와 국내 항일세력의 연대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학산(學山) 윤윤기(尹允基, 1900~1950)가 동북항일연군을 1940년 경에 방문하고 지었다는 다음과 같은 시가 전해지고 있다.

“보초병을 생각하며(憶步哨兵)”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을 바라보고 섰으니
세찬 비바람 맞으며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네
멀리 거친 하늘 바라보니 눈보라 몰아치고
다시 광야를 바라보니 날이 저물어 가는구나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니 목이 너무 뻣뻣하고
발은 한곳에 머물러 있으니 다리는 한가하구나
조국의 흥망성쇠가 두 어깨에 걸려있으니
어찌 살아 고국에 돌아가랴!¹³⁾

이 시가 확실히 동북항일연군에서 일제와 싸우고 있던 항일부대원의 모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매우 주목되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북항일연군이 비록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무장세력이라고 하지만, 이 시의 작자 윤윤기는 그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항일투쟁에 헌신하는 항일부대원(보초병)의 모습만을 생각하며 그러한 상황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북항일연군은 1940년대 전반 임시정부 및 건국동맹 등과 일정한 연대를 모색하면서 일제의 패망에 대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동북항일연군에 가담하여 싸웠던 한인들의 활동을 폭넓게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중국공산당에서는 1935년 8월 1일 ‘8.1선언’을 발표한 뒤 항일민족통일전선의 형성을 더욱 구체화했으며, 같은 해 중반 코민테른 7차 대회 이후 재만한인에 대한 자치와 독립쟁취 지원문제가 논의되었다. 그

13) 『민족21』 2009년 5월호, 118~119쪽.

결과 조국광복회와 같은 ‘항일민족혁명당’의 수립이 가시화되었고,¹⁴⁾ 김일성의 보천보전투와 같은 국내 진입 유격작전도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3. 동북항일연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현재 중국학계에서는 동북항일연군 투쟁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 많은 일본군·괴뢰 ‘만주국군’을 살상하고 일제의 중국동북(만주) 지방통치를 교란했으며, 전면적 중국 침략전쟁의 진전을 막았다. ② 중국의 항일구망(抗日救亡) 운동을 추동하고 중국인들의 총항전(總抗戰)을 촉진했다. ③ 강대한 일본군을 견제하고 중일전쟁에 유력하게 공동투쟁했다. ④ 동방피압박민족의 반제연합투쟁의 한 사례이며 세계 인민의 반파쇼투쟁의 한부분을 이루었다. ⑤ 해방후 소련군의 만주지역 진공시 ‘동북근거지’의 창건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 ⑥ 중국동북의 항일유격전쟁은 실질적으로 중국 항일전쟁의 발단이며, 동시에 새로운 세계 반(反)제국주의 침략전쟁의 개시였다. ⑦. 일본 침략집단의 ‘생명선’의 일부를 위협하고 큰 타격을 가했다.

물론 약간 과장된 부분은 있지만 이러한 평가를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충분히 음미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¹⁵⁾

한민족의 독립운동은 매우 광범한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끈질기게 전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속되었다. 때문에 폭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올바르게 평가하고 인식하는 개방적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남·북간의 분단과 대립을 극복하고 통일을 실현해야 할 당위성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역사인식의 범위를 확대하고, 거시적 ‘통일사관’으로 우리의 근현대사를 개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북항일연군 참가 한인들의 최후 항쟁과 대중조직의 결성은 한국사회에는 비록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이들은 중국공산당과 소련(코민테른)이라는 국제 지원세력의 도움을 받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조선혁명’이란 자신들 고유의 임무를 결코 잊은 적이 없다. 때문에 동북항일연군내 한인 투쟁세력은 비록 소수였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조선건국동맹 등과 함께 우리민족이 8·15 해방을 주체적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㉔

14) 상세한 내용은 양송(楊公)의 논문 「만주에서의 반제국주의통일전선에 대하여 —만주점령과 항일민족해방운동」, 『中國共產黨黨史資料集』8권, 일본국제문제연구소 中國部會 편(東京: 勁草書房, 1974), 105~117쪽 참조. 특히 이 가운데 “중국인과 조선인의 통일전선을 실현한 위에 공산당조직은 현재의 인민혁명군 제2군과 다른 항일유격부대 등을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우게 해야한다는 과제로 향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이 주목된다. 이홍광의 국내 진입전이나 1937년의 보천보 진공전투 등 국내진입 작전도 중국공산당의 이러한 방침과 연계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15) 金宇鍾 「東北抗日聯軍的發展概況及歷史作用」, 『東北抗日戰爭史論文集』(1992), 343~346쪽; 戴緒恭·譚克繩 「解放區戰場研究」, 『中國現代史研究概覽』(武昌: 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90), 326~327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실체를 밝혀라



김삼웅
前 독립기념관장

이명박 정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4대강 살리기다. 이것은 찬반 논란이 뜨겁게 전개된 가운데 임기 내에 완공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 중이다. 집권 기간에 별로 해놓은 일이 없는 정부가 ‘업적’으로 남기고자 하여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면서 추진 중이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 결과는 미지수다.

이명박 정권이 ‘임기 내’ 목표를 내걸고 추진 중인 사업의 또 하나가 이른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이다. 4대강 사업이 가시적인 물량적인 것이라면 역사박물관은 비가시적인 정신적인 사업에 속한다. 전자가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그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비해 후자는 실체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자칫하면 조상 만대가 살아온 강산을 파괴하는 일이 될 것이고, 역사박물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특정한 목적으로 건립된다면 자손만대가 살아갈 정신사를 망치게 될 것이다. 잘못된 가시적인 사업은 그나마 복구가 가능하지만 비가시적인 국민정신 문제는 여간해서 복구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박물관 건립 과정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대통령 임기 내에 준공한다는 목표 아래 속도전을 내고 있는 것은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언론도 이 문제와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어 관심 있는 국민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

| 특별기획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명칭대로라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역사의 사료·자료·기록·증언 등을 수집·전사하겠다는 뜻이 된다. 공명정대하게만 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정부 수립이 이미 60년이 지났고, 그동안 우리 현대사는 파란격동을 거치면서 경제발전과 제도적 민주주의를 이룩했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는 총체적인 박물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역사관에 있다. 이 정권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정신적 뿌리를 바탕으로 하여 이른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과 ‘부국의 아버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친일사관, 독재사관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관을 보여왔다.

그동안 정부와 관변학자, 어용언론(인)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폄훼하면서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삼고자 시도하고, 친일반역자들을 이른바 건국의 주역으로 추켜세웠다. 독재자 이승만과 군사쿠데타의 주역 박정희를 미화하면서 이들을 보수세력의 구심점으로 삼아왔다.

보수세력에서는 이승만의 동상을 서울 광화문에 세우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5·16쿠데타 50주기에 즈음해서는 박정희 군사독재를 ‘애국독재’라고 낮 뜨거운 칼럼을 쓰는 언론인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여 뜯어고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또다시 좌편향이라는 이유로 극우 냉전의 시각으로 손질하려 한다. 지난 5월 20일에는 보수신문들의 대대적인 조명탄을 받으며 ‘한국현대사학회’가 출범했다.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극우노선으로 바꾸는데 앞장선 ‘교과서포럼’의 주요 멤버들이 핵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대사를 전공하지 않은 우파 성향 학자들이 주축이 된 ‘한국현대사학회’의 노선이 식민지근대화론과 이승만·박정희를 우상화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학자가 적지 않다.

이명박 집권 3년여 동안 국정 실패로 보수세력이 총체적인 위기에 몰리면서 보수언론과 지식인·학자들이 발 벗고 나섰다. 이들은 위기 타개의 방법으로 이승만 건국론과 박정희 부국론을 내세워 국민을 현혹하고 재집권의 정책이데올로기로 삼고자 한다. 이승만과 박정희 살리기 현상 뒤에 잠재된 목표는 역시 재집권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면 비극이다. 역사박물관은 ‘역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위정사(眞僞正邪)와 시비곡직(是非曲直)을 제대로 밝히고 증명하면서 사료와 자료를 바탕으로 지어주어야 한다. 더욱이 현직 대통령 정부가 발의한 것을 재임 중에 속도전으로 끝내려는 것은 토목공사식의 발상이 아니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현직’의 영향력 아래 추진하여 준공까지 마칠까하면 현 정부의 입맛(사관)에 맞게 만들어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역사박물관 건립위원의 구성부터가 보수색채 인사들 중심으로 짜여졌다. 정부의 당연직 10명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문화관광부 제1차관, 국토해양부 제1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국가보훈처 차장, 국사편찬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이다.

민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19명이다. 위원장 김진현(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을 비롯하여 위원은 홍순영(한국외교협회 명예회장), 박유철(광복회장), 권영효(대한민국포병전우회장), 윤종용(삼성전자 상임고문), 이희범(STX 에너지·중공업총괄 회장), 이참(한국관광공사 사장), 장석훈(노사발전재단 이사장), 임권택(영화감독), 신달자(사회통합위원회 위원), 황석영(소설가), 이배용(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 이인호(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한영우(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김종규(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김원(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장대환(매일경제신문 대표이사), 이만재(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특임 연구위원)이다.

건립위원 중 민간인 건립위원은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했다.”고 한다. 정부의 당연직은 차치하고서라도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현대사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분야에 업적을 남긴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명칭대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라면 그야말로 한국현대사박물관을 일컫는데, 건립위원 가운데 현대사연구가를 배제한 것은 무슨 까닭이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19명은 극소수를 빼면 친정부 보수계열의 면면이다. 이들 위원의 선정에서부터 정부의 속내가 들여다보인다.

모름지기 박물관은 건축물의 양식과 구조 등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콘텐츠다. 어떤 자료와 문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고 진열할 것인지, 사료와 자료의 취사선택에서부터 선별 과정이 공정하고 엄정해야 한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학자적 양식과 역사의식이 요구된다.

정부수립 60년은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길다면 긴 시간이다. 다른 나라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겪었던 일을 우리는 압축적으로 치렀다.

분단정부, 6·25전쟁·냉전·이승만 독재·김구 암살과 조봉암 사법살인·3·15 부정선거·4월 혁명·장면 민주정부수립·박정희 5·16쿠데타·위수령·유신쿠데타·긴급조치·경제발전·부마항쟁·박정희 암살·전두환 등장·광주항쟁·6월 항쟁·IMF 사태·수평적 정권교체·6·15 선언·남북정상회담·천안함 사태와 연평도피격 등 실로 엄청난

| 특별기획 |

사건·사태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경제건설과 민주화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 현대사를 3년 여 동안의 준비와 공사 끝에 열렁뚱땅 만들어 개관한다면 엄청난 국가예산의 낭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승만 건국론'과 '박정희 부국론'을 중심 테마로, 민주화운동과 평화통일운동 그리고 노동자·농민의 생존권 투쟁 등을 종속변수로 삼아 진열·전시한다면,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현대사는 정치과정에서 빚어진 독재와 반독재, 경제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독점과 소외, 통일운동 과정에서 평화통일추진세력과 분단냉전세력 간의 줄기찬 대립과 투쟁으로 교직된 영광과 고통의 역정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독재자와 민주인사, 독점 재벌과 소외 빈민계층, 평화세력과 분단세력이 생겨나고, 수시로 이념 대립과 이해의 마찰을 불러왔다. 이런 현상은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역사박물관이 이와 같은 사력(史歷)과 사실을 덮어두고 특정 정권의 이념을 내세워 진실을 가리거나, 특정세력·인물에만 침소봉대하게 된다면 역사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 몇 가지 묻고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위원 중에 현대사연구가를 추가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

둘째, 실무책임자들의 명단과 경력, 이들의 역할을 공개할 것.

셋째, 현재까지 수집된 사료·자료의 목록과 입수경위를 밝힐 것.

넷째, 실무인력의 채용 경위와 명단을 공개할 것.

다섯째,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의 내역과 총예산 규모를 밝힐 것.

여섯째, 현재 건물의 건축공정과 구체적 개관 일정을 공개할 것.

국민세금으로 짓고 있는 역사박물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에 정부와 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는 답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더불어, 역사박물관 내용의 편향, 편파·왜곡을 막고, 건축물이 부실되지 않도록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덧붙이고자 하거니와 권력은 짧고 역사는 길다. 건립위원들과 참여한 직원들은 권력에 맹종하는 충성심보다 역사에 충실한다는 신념으로 대한민국에 길이 남을 역사박물관을 만들기 바란다. 짧은 기간의 신상과 안위에 연연하다가 자칫 역사에 오명을 남긴 사례가 적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명심해야 할 대목이 있다. 이승만 재임 시에 세웠던 여러 곳의 동상이 4월혁명 과정에서 시민들의 밧줄에 묶여 끌려 다닌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재임 중에 역사박물관을 개관하겠다는 업적주의에 매몰되어 특정사관에 치중된 박물관을 만든다면, 퇴임 후 박물관이 처해질 운명도 생각해볼길 바란다. ☉

대를 친다고 대쪽이라



김지용 | 소설가

성북동에도 기울어진 해가 마루 앞 댓돌에서 빛을 비끼는 한때가 어김없이 찾아왔다. 댓돌 위의 큼직한 검정고무신이 간절한 해바라기라도 하려는 듯, 한껏 코를 들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처마가 내려두른 응달은 댓돌 아래 마당까지 슬금슬금 영역을 넓히는 중이었다.

마루에는 마당을 마주하고 길게 펼쳐진 화선지를 앞에 둔 남자가 붓을 놀려댔다. 화폭의 한쪽에 하늘을 향해 날이 선 가지를 빼곡히 쳐올린 대나무가 가득했다. 기세가 좋긴 한데 먹의 농도가 아무래도 좀 떨어져 보였다. 화가가 보여주는 농익은 손놀림과는 달리, 붓을 쳐올릴 때 손목의 탄력이 죽어버린 탓인지도 몰랐다.

마당과 마루로 난 문을 활짝 열어젖힌 안방에서 젊음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노파가 역시나 미간을 좁히고 화폭과 화가를 갈마봤다. 이윽고 노파가 고개를 돌려 마당을 돌아볼 때였다.

열린 대문으로 젊은 여자애가 벗겨지는 고무신을 억지로 끌어대며 허겁지겁 달려들었다.

“다야마 상, 옵니다 와요!”

젊은 여자가 숨을 몰아쉬기도 전에 마당으로 향한 안방의 문이 획 닫혔다. 그 후로 노파의 움직임은 없었다. 마루의 화가가 안방의 노파에게서 계집아이에게로 시선을 돌린 후 모를 일이라는 듯 눈을 껌뻑였다. 계집아이는 화가의 눈길을 무시하고 머리와 옷매무시를 고치며 대문에 붙어 섰다.

보름 쯤 전이었다. 배정자(裴貞子)라는 이름의 칠순 노파는 차를 앞에 두고 마침내 길게 한

숨을 내쉬었다.

‘철없는 놈들!’

그 말 외에 달리 할 말이 없었다. 누구 하나 상해를 입히지도 못할 무딘 칼을 신주단지 모시듯 가슴에 품고서는 걸핏하면 꺼내들고 법석이었다. 찢러보라 배라도 내밀 양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꼬리를 말고 마는 놈들이 허세만 가득했다. 그런 놈들에게는 적의마저도 아까웠다. 그래도 그 무딘 칼이 묘하게도 신경을 자극했다. 하찮은 인간들의 손가락질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머칠 전에 집 두어 채 값의 잔금을 마저 받았다. 손쓴 노력에 비해서는 아주 과한 금액이었는데, 그 자신이 아니었으면 해내지 못하는 일이고 보면 그 금액은 적다면 적었다. 군수품 조달을 맡은 일본인 민간업자가 그녀를 찾은 것은 태평양 전쟁이 한창인 1942년 봄이었다. ‘천황(天皇)의 성전(聖戰)’을 독려하기 위한 군위안부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강제 징발도 아니요 돈을 내주는 일임에 욕먹지 않고 순조로이 진행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남양 군도까지 가서 ‘위안부’ 노릇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아예 필요치 않았다. 배정자는 ‘천황에의 충성’에 순도를 떨어뜨리는 구차한 설명은 애초 생각하지도 않았다.

헌데 이 거룩한 사업을 끝낸 후에 약간의 잡음이 일었다. ‘군위문대’라 둘러댄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백 명 넘는 처자를 배에 실어 보낸 뒤라 뒤탈이 날 염려는 없었지만, 그 수군거림을 생각하면 손에 쥐 돈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그러저런 이유로 이광수를 보자 했고, 이광수에게 지폐 한 묶음 쥐어 보냈다. 만해(卍海) 한 용운이라는 인간을 찾아가서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돈이었다. 이광수가 몹시도 힘겹게 돈뭉치를 들었을 때부터 배정자는 일의 성공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나마 작은 파장이라도 그 늙은 ‘철부지’에게 안겨줄 수 있다면 다행이었다. 자신의 집 위에 갈잡게도 심우장(牛莊)이라는 집을 짓고 사는 늙은이 덕에 고개가 아팠다. 꿈자리가 뒤숭숭한 것도 자신의 머리 꼭대기를 누르는 그 심우장 때문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고개를 푹 숙인 이광수가 대문에 들어섰다.

“다야마 상…….”

뒤끝 무른 이광수의 부름에도 배정자는 외면했다. 이광수가 안방에 들어 돈뭉치를 도로 내놓기까지 말없이 기다렸다.

“춘원, 만나긴 했습니까?”

고개를 짓는 이광수의 얼굴에 낭패감이 묻어났다. 그녀가 ‘춘원’ 할 때부터 그의 안색은 급격히 굳어졌다. 그녀가 부르는 ‘춘원’과 ‘가야마(香山) 상’은 비단 어감의 차이만이 아니

었다.

“조선민은 일등신민이 될 수 없으니 이등신민의 자리라도 얻어내야 조선민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춘원의 생각은 변함없는 게지요? 이등신민의 자격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정답을 알고 있는 이광수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일등신민에 대한 충성이지요.”

배정자의 목소리가 많이 누그러졌다.

“내선일체(內鮮一體)의 한목소리도 모자랄 판에, 뼈뚫한 늙은이 하나 어찌 못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독립? 한참 모자라는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대일본제국 아니면 조선은 영원히 열강의 식민지예요. 가야마 상이 이리 열심인 건 개인의 영달 때문이 아니잖아요. 조선민의 번영을 위한 힘든 길인 걸 압니다.”

고개 숙인 이광수는 말이 없었다.

“정말 현실을 모르는 철없는 늙은이예요. 압록강 건너와 없는 백성들 호주머니 털어 군자금 마련한다 어쩌다 하는데, 이리 건네는 돈뭉치를 외면하는 건 또 뭐란 말입니까. 총독부건 배정자건, 누구 돈이면 어떻습니까. 누가 총독부가 전해주는 돈으로,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합니까?”

이광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다야마 상, 말씀이…….”

“답답하니 말이 그리 나오는군요.”

배정자로서는 비집고 들어갈 작은 틈만 만들면 그 다음은 아주 쉽다고 생각했다. 그런 경우는 수없이 보아온 터였다. 아무리 강짜를 부리는 독립투사라도, 호젓하게 건네지는 술 한 잔 받아 마시는 순간, 이미 건널 수 없는 변절의 강을 건너는 것이었다. 그 한 잔 술을 입에 대기까지가 대부분 공작의 전부였다.

“제법 풍족하게 돌아갈 듯하니, 수고해주세요.”

배정자가 내민, 문인들에게 돌리는 돈다발을 이광수는 머뭇거리기 없이 집었다. 주고받는 일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광경이 반복될수록 배정자는 오히려 그 분위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 건 ‘개인의 영달’이 아닌 ‘조선민의 번영’이라는 억지로 씌운 허울이 벗겨짐에 따른 현상이었다. 그럼에 배정자는 그 낯설음을 익숙함으로 되바꾸어야 했다.

“문인들의 삶이야말로 조선민의 혼입니다. 조선민을 명청한 꿈에서 현실로 깨어나게 하는 힘이지요.”

이광수는 슬그머니 보따리를 들고 일어섰다. 백 명의 처자가 남양 군도까지, 군 위안부로

팔려간 돈이라는 것을 아는 그가 한마디 덧붙이는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참으로 나약한 쓸모없는 인간들이로다. 삶의 밑바닥을 보지 못했으니 명분 뒤에 숨어 꿈지락떨 밖에.’

배정자는 자신의 칠십 평생을 돌아봤다. 배(腹) 위에 올려놓는 남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이 역시나 늘었다. 마침내 도일 후 이토 히로부미의 양딸이 되어 첩보 훈련을 받고 일선에 투입될 때까지, 그는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남자들에게 안겼다. 대가를 전제로 몸을 파는 일은 아무리 도화살이 끼었다 해도 이를 물어야 했다. 어린 시절에 겪은 죽음을 눈앞에 둔 극악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까지 도저히 오르지 못했을 것이었다. 죽음을 앞에 둔 악에 반친 오기가 아니었다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첩보의 일선에서 그토록 험악한 공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었다. 양부인 이토가 안중근이라는 ‘홍적’의 총알에 생을 달리하여 내리막 인생을 맞았을 때도 그 오기가 아니었다면 추락했을 것이었다. 그런데……, 저 나약한 인간은 여전히 삶의 오기를 모른 채 현실을 벗어난 어색한 꿈의 한자락을 놓지 않은 듯했다.

‘심우장(尋牛莊)……, 심우(尋牛)? 자신 내면의 길을 찾는다? 한심한 놈들!’

만주에서 맛닥뜨린 ‘투사’ 라는 같잖은 것들 중에는 제법 삶의 바닥을 아는 놈들이 있었다. 아주 고약한 놈들이었다. 아무 의미 없이 건네지는 술 한 잔에도 당장 죽음을 앞에 둔 놈들 같지 않게 술잔을 들어 던지는 호기를 부리곤 했다. 한 잔의 술이면 목숨이 붙어하는데 그걸 내던지는 한심한 놈들이었다. 죽어나는 고문 끝에서도 그 지랄이었다. 발뺌기 전체를 들어내는 것도 아닌데, 작은 고구마 줄기 하나 던져주려 하지 않았다. 술잔에 목숨 건진 놈을 대면시키면 제 목숨 달아나는 놈이 숨 붙은 놈을 향해 죽이니 어찌니 개지랄을 떨었다. 똥발에 굴러도 저승보단 이승이 낫다는 말도 모르는 진짜 멍청한 놈들이었다. 제기랄……, 그런 놈들에게 쫓겨 은퇴하고 틀어박힌 자신의 처지가 역시나 억울하기만 했다.

“다야마 상, 일주(一洲)를 부르세요.”

이광수의 말에 배정자가 상념에서 깨어났다. ‘일주?’ 배정자는 금방 그 이름을 떠올렸다. 김진우라는 그림쟁이, 대일본에 충성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자로서, 출창 대나무만 그려댄다고 했다. 그런 자가 자신을 찾아올 리가 없다는 생각에 고개를 갸웃하는데 이광수의 말이 이어졌다.

“일단 마루에 오르면 박차고 나갈 만큼의 박력이 없는 위인입니다.”

그렇다면 술 한 잔 건네면 끝이라는 말이었다. 헌데 갑자기 그림쟁이라니? 배정자는 이광수의 속내가 궁금했다.

“아시다시피 만해 선생님의 뒤를 봐주시는 국수열(菊壽烈) 선생님이 매일 이 길을 오르지 않습니까? 일주와도 친분이 있으신 분이데, 선생님이 일주를 보시면 만해 선생님은 반드시

내려오십니다.”

배정자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눈빛이었다. 자신의 집을 구더기 바글대는 뒷간쯤으로
나 여기며 외면해대는 한용운인데, 그럴 리가 없었다.

“선생님이 만해 선생님께 일주의 일을 말씀하시면 만해 선생님은 호통을 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려오십니다.”

배정자는 간단히 입맛을 다시고 이광수를 외면했다. 마당에 서서 한용운의 호통을 맥없이
보고 있어서야 자신의 체면만 구겨지는 꼴이었다.

“일주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시면 안방까지는 들어오실 겐니다. 고개 숙인 일주에게 대뜸 호
통을 치실 만큼 모진 분이 아니십니다.”

배정자의 눈초리가 치켜 올라갔다. 그렇다면 안방에서 술 한 잔도 ‘대뜸’ 물릴 만큼 모진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었다. 역시나 삶의 끄트머리를 붙잡고 살지 않는 먹물들에게는 제 삶의
사치밖에 아닌 측은지심이란 것이 있었다. ‘게다가 중놈이지 않은가!’ 배정자는 무릎이라도
탁 치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녀의 귀에는 이광수의 나직한 말이 들리지 않았다.

“대쪽은 모진 바람에도 부러지진 않지만, 작은 흠결에라도 두 쪽 나버리지요.”

그리고 며칠 후, 이광수의 말처럼, 김진우라는 그림쟁이는 마당에 들어서 배정자를 바라보
고는 흠칫 놀라면서도 발걸음을 돌리지 못했다. 그리고 안방에서 술 한 잔 힘겹게 넘기더니
‘조선의 얼이 담긴 대나무 그림을 보고 싶습니다’ 하는 허울 씩은 배정자의 미끼에 맥없이 무
너져 화폭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하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열린 대문가에 붙어 섰던 계집아이가 초로의 국수열에게 호들갑을 떨며 인사했다. 배정자
의 집 반대편 하늘을 보고 걷던 국수열은 황당한 경우에 처한 사람처럼 이맛살을 찌푸리고 앞
을 막아선 계집아이를 노려봤다.

“일주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계집아이가 집안을 바라보며 말을 건넸다. 국수열이 놀라 눈을 홉떴다. 사실을 확인하려고
고개를 빼들었다. 마침 대문의 소란에 김진우가 놀리던 손을 멈추고 대문을 바라봤다. 그리고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쿵.”

국수열이 손을 들어 물리는 시늉을 하며 계집아이를 비껴 지났다. 못 볼 걸 봤다는 낭패감
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다. 그 낭패감은 김진우의 얼굴에도 그대로 묻어났다.

‘쫓아나가지도 못하는 위인이로고! 하긴 제놈이 달려가서 뭘 말을 할 것이여. 계집 벗겨놓고 올라타선 가슴에 대나무 치려 했다는 변명이 차라리 낫지, 내 집에서 조선의 혼을 그린다 고 입 뽕긋 할 수 있간?’

배정자는 붓 잡은 손을 떠는 김진우를 지긋이 바라봤다. 그의 초점 없는 눈이 빈 화폭을 내려보기만 할 뿐, 손짓은 죽어버렸다. 배정자의 입에 미소가 걸렸다. 그녀의 눈에는 김진우의 모습이 어느새 한용운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배정자는 마당으로 난 안방의 문을 열었다. 이광수의 말이 착착 맞아가는 꼴이 다 된 밥에 숟가락 올리면 되는 듯했다.

역시나 대문에 후줄근한 차림의 중이 뒷짐 진 채 마루의 김진우를 바라본다. 가쁜 숨을 안으로 감추어봐야 이마의 땀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제 놈이 사대신장이라도 되는겨?’

그러면서도 배정자는 터져나는 함박웃음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신발을 찾을 것도 없었다. 그대로 달려 대문으로 향했다. 한 옆에 다소곳이 서서 허리를 숙였다. 한용운이 바로 발길을 돌리면 어찌나 하는 생각에 인사말도 꺼내지 않았다.

한용운은 배정자의 인사에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로지 김진우만을 담고 있었다. 김진우는 일어서지도 못한 채 우는 얼굴로 붓 끝만 내려볼 뿐이었다.

한용운이 배정자를 비껴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섰다. ‘옳지!’ 배정자는 신이 나서 한용운의 뒤를 가만히 따랐다. 한용운이 땀돌 아래서 멈춰 서 화폭을 훑어볼 때 배정자는 계집아이에게 고갯짓을 해보였다. 계집아이가 뺑하니 부엌으로 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에는 교자상 가득 음식이 차려졌다.

계집아이가 한용운의 앞에서 공손한 몸짓을 해보였다. 한용운은 뒤에 선 배정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주인이라도 되는 양 고무신을 벗고는 성큼 마루로 올라섰다. 그리고 안방의 주인 자리는 놔두고 김진우가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를 잡고 앉아서 처음 대문에 들어선 그 모양 그대로 김진우를 바라봤다.

배정자는 한용운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고 상의 한쪽을 차지하고 앉았다. 말없이 주전자를 들어 한용운 앞의 술잔을 채웠다.

‘측은지심이란 말이지! 다 된 밥이다.’

배정자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그 한 잔의 술을 입에 대기까지 무뎠어도 땀을 들일 터였다. 그 상황에서의 기다림은 초조함이 아닌, 숨통을 향해 내지르는 날선 단도가 안겨주는 짜릿한 흥분이었다. 김진우의 땀이 떡 대신 화선지에 떨어졌다. 단도의 파란 빛이 번뜩일 시각이 다

가왔음을 배정자는 직감했다. 김진우가 험스한 얼굴을 들어 가련한 눈초리로 돌중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에 돌중은 짧은 한숨과 함께 잔을 들어올릴 것이었다. 그래도 그 시간은 참으로 길게 느껴졌다. 환갑의 사내를 앞에 두고 칠순의 노파는 ‘십 년만 젊었어도…….’를 되뇌고 있었다. 황진이라도 발밑에 두는 그녀로선 고승도 아닌 돌중 하나 녹이는 건 일도 아니라 생각했다.

이윽고 땀으로 범벅이 된 김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초점 없는 눈이 한용운을 향했다.

“선생님……, 한잔 올리겠습니다.”

배정자가 쾌재를 부를 새도 없었다. 배정자는 김진우가 꿈틀 하는 모습만 보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회색의 무언가가 눈앞에서 번득했다고 보았을 뿐이었다.

상이 날았다. 김진우의 화폭에 한쪽 모서리가 걸린 교자상이 네 다리를 흥측하게 치켜들고 벌렁 누웠다. 잘 차려진 주안상이 한껏 망가져 화폭 위로 옮겨져 있었다. 한용운의 앞에 놓였던 술잔이 술을 쪼르르 흘러내며 한 옆으로 굴렀다. 김진우의 당혹스런 눈초리, 그러나 예상하고 있었다는 맥없는 눈초리가 술잔을 따라 굴렀다.

“하하하하!”

한용운이 대소(大笑)를 날렸다. 배정자도 김진우도, 갑작스런 그의 웃음에 넋 놓은 사람처럼 멍해져버렸다. 호통이 있어야 할 자리였다.

그렇게 한용운은 말 한마디 없이 호탕한 웃음만 날리고 오던 모습 그대로 되돌아 나갔다. 배정자가 잔 하나 집어 건네며 ‘한 잔만!’ 간절한 청을 넣기도 전에, 계집아이가 달려들어 소맷자락 잡아끌며 달래기도 전에, 그의 모습은 마당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김진우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한용운의 뒤를 따라붙을 양인지 모를 일이지만, 그는 비척이며 바로 한용운의 뒤를 따랐다.

대문을 나서는 한용운의 박박 민 머리에 햇빛이 미끄러졌다. 그 뒤에 비척대며 걷는 김진우의 신형으로 그 날카로운 빛이 쏘아져 가는 듯했다. 배정자는 그렇게 느꼈다. 그 빛이 김진우를 넘어 자신의 이마를 향하고 있었다. 날선 단도가 내뿜는 퍼런빛이었다.

배정자의 눈길이 술잔을 찾았다. 한 잔, 딱 한 잔의 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따질 경황도 없었다. 백 명의 처자가 남겨준 거액을 한용운의 앞에 내밀어보기도 전에 모든 것이 끝나 버리고 말았다.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감정은 모기에 물린 간지러움으로 치부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했다. 불쾌감과 섬뜩함이 어찌 공존할 수 있는가……, 배정자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대나무 화폭은 주전자에 쏟아낸 술로 흠뻑 젖어갔다. 그리고 대나무의 형체는 번져버린 뿌연 먹물로 가득 번져나고 있었다. ☉

잊혀진 독립운동가 金宗伯을 찾아서



박관우
독립유공자 컨설턴트

잊혀진 독립운동가 김종백 선생에 대하여 기술하기 전에 먼저 어떤 계기로 인해 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내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가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필자의 종조부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고등학교 2학년 때인 1980년 족보를 통하여 종조부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종조부의 행적에 대하여 궁금증은 가지고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후인 1992년 집안 일가 아저씨를 통하여 종조부가 만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증언 때문이었다. 이 한마디가 계기가 되어 종조부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독립운동가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종조부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그동안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재당숙의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을 발견한 것이다. 그날이 1993년 4월 27일이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벅찬 감동을 느낀다

입수된 판결문을 통하여 재당숙이 1940년 경기중학교 5학년 재학 중에 비밀결사조직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단기 3년, 장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 판결문을 근거로 서대문형무소 수감자 명부에서 재당숙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재당숙이 구속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확정판결을 받은 후 원산형무소로 이감되어 복역하다가 출소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한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출소 후 재당숙이 러시아로 유학을 갔다가 그만 거기에서 행방불명되었다는 비통한 소식을 집안 어른신을 통하여 확인하게 된 것이다. 결국 우리 가문은 독립운동가를 두 명이나 배출하였으면서도 두 분 모두 행방불명이라는 불행을 겪어야 하였으니,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참으로 통탄스러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재당숙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기중학교 동창생인 김종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김종설을 통하

여 처음으로 김종백의 사연을 접하게 되면서, 그의 독립운동 활동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산해’라고 알려진 김종백은 한마디로 베일에 싸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할 당시의 그의 나이가 32세라고 하니, 역산하면 1914년 출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김종백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과 성장과정이 어떠한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김종백의 행적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그가 일본 메이지대학을 졸업하였다는 것인데, 어떤 경위로 일본에 가서 메이지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는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김종백이 조선민족해방협동당을 결성한 1943년, 그는 대동아학원의 서무계 겸 강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시시각각 일제 패망의 기색이 짙어지는 1943년 여름, 김종백은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조선독립이라는 웅장한 포부를 가슴에 품으면서 동지들을 규합하여 협동당을 결성하게 되는 것이다.

협동당의 본거지는 일본에 있다가 이후 조선으로 옮겨지면서 새로운 판도가 형성되었다. 김종백은 1944년 경성부 계동에 협동당 임시본부를 마련하면서 조선 내에서 서서히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가운데 경성제대 의학부 학생이었던 김종설과 만나게 된다.

김종백이 김종설을 만나게 된 계기는 이렇다. 1944년 7월 16일 당시 경성제대 의학부의 정성장이라는 학생이 문우당(文友堂)이라는 고서점에서 김종백을 최초로 만난다. 그로부터 10여분 후 마침 문우당을 지나가던 김종설을 목격한 정성장이 김종설을 불러들이면서 김종설과 김종백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김종설은 김종백을 만난 이후, 1944년 8월 10일 몽양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직된 건국동맹에 가입하여 청년부에서 활동하였다. 그리고 김종설은 그해 10월 가회동에 소재한 그의 자택에서 몽양 여운형과 김종백의 회동을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건국동맹과 협동당을 연결하는 중요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한편 계동에 협동당 임시본부를 마련하였던 김종백은 다시 경기도 포천 백운동으로 그 근거지를 옮기고 협동당을 전국적 조직으로 확대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선독립의 웅장한 포부를 이루기 직전인 1944년 12월, 일제 경찰의 급습을 받아 김종백을 비롯하여 백운동에 은거하고 있던 60여명의 당원들이 검거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다. 당시 전국적으로 120여명의 당원이 검거되었다고 하니 협동당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협동당의 지도자였던 김종백은 1945년 1월 일제의 고문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하게 되는데, 더욱 비통한 것은 김종백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김종백의 유족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김종백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매진하다가 장렬하게 순국한 김종백 선생이 지금이라도 독립유공자로 추서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영화 <인도차이나>, 식민지 역사의 불편한 기억

레지스 와그니에 감독의 영화 <인도차이나>(1992)는 1990년 출간한 프랑스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과거 프랑스의 베트남 식민지 지배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소위 역사의 격동기를 살아간 영웅적 남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영화를 우리는 전형적인 역사 로맨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해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하고, 베트남의 명소인 하롱베이와 닌빈의 풍광을 아름답게 담고 있기도 한 영화는 까뜨린느 드노브라는 여배우와 함께 많은 관객들에게 아직도 감동적인 작품으로 기억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영화는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만족스러운 부분들만큼이나 보여줄 수 없었던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식민지 역사에 대한 또다른 후일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는 주인공이자 화자이기도 한 엘리안느로부터 시작한다. 베트남에서 태어난 프랑스인인 그녀는 식민지 고무 농장주의 딸로서 안남의 마지막 황녀 까미유를 의붓딸로 키우고 있는 독신녀이다. 어느 날 엘리안느는 젊고 야심찬 프랑스 장교 장 밥티스트를 만나서 잠시 연인 사이가 되기도 하지만, 밀회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 장은 결국 그녀를 떠나고 만다. 그 후 우연히 장을 만난 까미유는 첫

눈에 사랑에 빠지고, 이 사실을 안 엘리안느는 까미유를 서둘러 결혼시키고 장을 멀리 전출시켜 그들을 떼어내려고 한다. 하지만 까미유는 친구이자 남편인 똘 탄의 도움으로 결혼 첫날 장을 찾아 떠난다. 하지만 긴 여행 끝에 까미유가 찾은 것은 장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식민지 지배와 가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자신의 조국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노예 시장에서 프랑스 경찰을 살해하게 된 까미유는 장과 함께 유랑극단을 가장하며 도피



생활을 계속한다. 서서히 베트남의 독립운동은 거세져가고 있었고, 그녀는 차츰 베트남의 잔다르크가 되어가고 있었다.

영화 <인도차이나>는 1920년대 베트남 왕가들의 몰락부터 1954년 제네바 협정으로 분단된 베트남이 만들어지기까지의 30여년에 걸친 베트남 현대사를 다루고 있지만, 엘리안느를 통해서 영화가 회상하는 장면들은 대부분 1930년대에만 머무르고 있다. 당시의 베트남은 민족주의 독립운동이 커져가며 프랑스의 식민지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지만, 아직 2차 대전의 전화가 미치고 있지는 않았을 불확실한 미래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영화 속에서 생략되거나 언급되지 않은 베트남의 역사, 특히 프랑스 피식민지로서의 역사는 언제부터일까? 프랑스가 직접적인 베트남 침략을 시작한 것은 선교사 탄압을 빌미로 한 1858년 다낭 침공부터일 것이다. 그리고 1984년 무렵 청나라와 톤킨 조약을 맺기까지 불과 이십여 년 동안 프랑스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의 인도차이나 지역을 완전히 식민지화하였다. 엘리안느가 한 번도 인도차이나를 떠난 적이 없는 프랑스인이었다는 것은 이미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의 식민지 산업이 베트남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짐작케 해준다. 그리고 20세기 초반부터 베트남에서는 왕가를 비롯한 많은

상류층 자녀들이 프랑스로 유학을 가기 시작한다. 프랑스로서는 베트남의 친불화 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였겠지만, 한편으로 베트남 민족에게는 나라를 되찾기 위한 힘을 기르는 기회가 되기도 했던 것이었다. 실제 이후의 베트남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많은 사람들은 프랑스 유학파가 된다. 식민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왕조는 서서히 몰락하고,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베트남 독립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이내 맞게 된다. 영화 속에서 살짝 언급되었던 1930년의 옌 바이 총봉기 사건은 대략 베트남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기이자, 프랑스에 의한 본격적인 탄압의 시작이기도 했다. 영화 속에서 까미유의 어릴적 친구이자 정혼자였던 탄은 파리 유학 중에 이 사건과 관련한 시위에 가담한 이유로 강제 귀국 조치되었던 것이다. 또한 영화에서는 조금씩 베트남공산당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우리에게 호찌민으로 알려진 응우옌 아이 꾸옥(1890-1969)과 같은 공산당의 주요인물은 조심스러운 듯 직접 인용하지는 않고 있다.

사실 한 편의 영화가 베트남의 근현대사를 모두 포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나마 미국의 베트남 전쟁 외에 별다른 영화가 없었던 것에 비하면 영화 <인도차이나>가 다루는 베트남은 거의 새롭기까지 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의 재현이나 언급에 대해서도 이 영화가 일방적으로 식민지 지배 국가의 이해만을 반영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우리가 이 영화에서 주목할 지점은 영화가 다루거나 다루지 못하는 역사적 사실들이 어떻게 영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있다. 즉, 역사에 대한 어떤 태도가 그 이야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영화의 이야기에는 프랑스인 어머니와 베트남의 붓딸, 그리고 두 모녀의 사랑을 받는 한 남자라는 인물 설정과 사랑과 조국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사건이 있다. 여기서 인물들의 관계는 어딘지 근친적이고 그들의 공간은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전설적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주관적인 기억으로서 서술되며 역사를 대신하는 것처럼 그려진다. 다시 말해 역사의 인과관계보다는 신비적인 공간에서 이미 주어진 이야기로서, 마치 하나의 신화처럼 그려진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역사를 가장하지만 결국 선택된 기억들의 기만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억눌린 또 다른 기억들로부터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내비쳐질 때, 영화의 인물들은 쉽게 감상에 젖어버리곤 한다. 때때로 인물들의 운명은 식민지의 지배자인 프랑스인과 피지배자인 베트남인이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엇갈리곤 하는데, 이는 기억의 왜곡을 넘어서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지 않으려는 자기애적이고 퇴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을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프랑스의 어떤 복잡한 기억과 자기 상실감에 연유한다고 볼 수는 없을까? 혹은 베트남이라는 식민지의 상실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받아들이지 못해 피할 수 없었던 프랑스의 불편한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프랑스인들과 달리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찾는 것은 영화와 원작 소설에서조차 베트남인들이 그려질 때이다. 까미유를 떠나보낸 것에 대해 남편 탄이 어머니의 질책을 듣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복종하는 버릇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프랑스인들은 저에게 자유니 평등이니 하는 말들을 가르쳐주었어요. 이젠 그것으로 그들과 싸워야해요.” 그리고 탄은 생각한다. 비록 프랑스어는 압제자들의 언어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대항해 싸울 방법을 가르쳐준 언어이기도 했다고. 결말 부분에서 엘리안느를 만난 까미유는 또한 이





렇게 말한다. “엄마, 너무 늦었어요. 나는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내게 과거 따윈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버렸고 또 모든 걸 잊었어요... 어머니의 인도차이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벌써 죽었어요.” 프랑스인들은 식민지 역사의 왜곡만큼이나 스스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베트남인들은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엄격하고 흔들림이 없을 뿐이다.

그런데 어쩌서 수십 년이지나 프랑스는 과거의 식민지 베트남을 이와 같이 새삼 향수하려 하는 것일까? 그것은 역시 시대의 변화라는 말 외에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을 것 같다. 20세기의 끝 무렵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베트남을 비롯한 과거 인도차이나의 국가들에도 경제적 자유화와 개방의, 그리

고 한편으로는 혼란의 물결이 들이쳤다. 그리고 반세기만에 프랑스는 문화 경제적 협력을 위해서 과거의 식민지 국가들에 돌아왔다. 프랑스로서는 아시아의 프랑스어권 국가들을 다시 조직하기 위해서, 그리고 베트남으로서는 달라진 국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자구책도 필요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러한 복잡한 이유들과 같은 맥락에서 영화 <인도차이나>는 다시금 프랑스와 베트남과의 불편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한편으로는 무마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역사적 입장이란 마치한 시대의 영화와도 같이, 어딘가에 고정되지 않고 계속하여 변화해가는 것이리라.

참고로 베트남의 독립운동에 대한 자료를 찾던 중 과거 대한제국의 우국지사들과 베트남 독립투사들의 만남에 대한 흔적을 하나 찾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독립지사라 할 만한 홍묵 선생이 1940년대 당시 일본에서 베트남의 독립투사들과 교류하며 쓴 저작물이 훗날 번역 출판된 <인도차이나 동란 40년사>라는 책이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프랑스의 베트남 침략에 대항해서 20세기 초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의 베트남 역사를 민족독립운동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두 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을 연대의 가능성을 지금 다시 상상해 보고 싶다. 🌐



이회영 평전



▲ 이회영 평전 김삼웅 지음/책보세

이회영 평전 | 김삼웅 지음/책보세

백사 이항복을 비롯하여 대대로 정승·판서를 지낸 삼한갑족의 후예로 태어난 이회영은 일제에 나라가 망하자 “공신의 후예로서 국은國恩과 세덕世德 당대의 으뜸이라는 우리 집안이 어찌 왜적의 노예가 될 것인가” 통탄하며 6형제 일가·식솔 60여 명을 이끌고 만주로 망명하여 항일 무장투쟁에 나섬으로써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였다. 살아 있는 교과서이자 ‘지나간 미래상’으로서의 이회영의 생애를 탐구하고 조명한 이 책은 그대로 ‘아나키스트 항일독립운동사’이자 삼한갑족 부귀영화를 박차고 항일투쟁의 전사가 된, ‘아나키스트’ 이회영의 파란만장한 ‘망국노’ 일대기 이다.

2011년 6월 10일은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신흥무관학교는 일제강점기 항

일무장투쟁의 상징이자 요람이었다. 독립투쟁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청산리·봉오동 대첩의 주역들도 대부분 신흥무관학교가 길러낸 전사들이었다. 1911년 설립하여 1920년 폐교하기까지 10년 동안 항일전사 3500여 명을 길러냈으니 가히 '독립군 사관학교'였다. 그 신흥무관학교 설립의 주역이 바로 우당 이회영을 비롯한 신민회 동지들이고, 그 설립자금은 이회영 형제 일가의 전 재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40만 원이었다. 현재 가치로 600억 원에 이르는 거금이다.

신흥무관학교는 이회영과 그 형제들 그리고 동지들이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고 만들어 운영한 독립군기지다. 이회영은 여기서 배출된 전사들과 더불어 항일무장투쟁의 '전위前衛'에서 자유와 해방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다. 당시 일제를 경악케 한 항일투쟁의 배후에는 대개 이회영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회영은 어떤 '자리'나 '지위'에도 이름을 걸지 않고 그야말로 '백의白依'로써 투쟁의 전위에서 종군하였다. 당시 내로라하는 아나키스트 독립투사들은 대개 신흥무관학교를 거쳤으며,《아리랑》의 주인공 김산(장지락)은 최연소(15세) 입학생이었다.

우당에 관한 '본격 평전'으로는 최초로 할 김삼웅의《이회영 평전》은 우당 개인의 일대기에 국한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당시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심층적·입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보재 이상설, 단재 신채호, 석오 이동녕, 백야 김좌진 등과의 관계는 한국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씨줄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의 노블레스들은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는 없었다. 그래서 왕권의 그늘에서 온갖 이권과 호사를 누리던 자들이 막상 나라가 망하자 일제에 빌붙어 일왕이 주는 작위와 거액의 은사금을 받고 조국과 겨레를 배신했다. 이런 축에도 못 끼는 자들은 친일파가 되고 부일협력자가 되어 일제에 충성하면서 호의호식했다.” 그런 참담한 역사 가운데서도 이회영 일가와 같은 오블리주를 온몸으로 실천한 노블레스가 있어 오늘날 우리가 반이나마 '독립된' 나라에 살고 있진 않을까.

이회영은 “역사가 무엇인지를 묻지 말고,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를 물어야 한다.”는데 대한 답을 온몸으로 실천한 행동가이다. 살아 있는 교과서이자 '지나간 미래상'으로서의 우당의 생애를 탐구하고 조명한 이 책은 그대로 '아나키스트 항일독립운동사'이기도 하다. ㉞



제7기 독립정신 답사단 사전 모임 안내

제7기 독립정신 답사단의 사전 모임이 7월1일 (금)부터 2일(토)까지 1박2일간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시청각실 에서 열린다.

사전모임은 답사단 합격자 약70여명이 참가하며, 조별 모임 및 사전 강의, 답사 중 유의사항을 듣는 순서로 모임이 진행된다.

이번 사전모임을 시작으로 제7기 독립정신 답사단의 공식 일정이 시작된다.

답사단의 사전모임은 제7기 독립정신 답사단원 뿐만 아니라 전 기수의 답사단, 일반 회원의 참여도 가능하며,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일시 : 2011년 7월 1일(금) 13:00

장소 :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대방역 3번 출구 하차 도보 50m)

제7기 독립정신 답사단 “동북지역 항일 무장투쟁지를 찾아서”

제7기 독립정신 답사단의 답사가 7월19일(화)부터 7월 25일(월)까지 6박7일간 진행된다.

“동북지역 항일 무장투쟁지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답사는 신홍무관학교 설립 100주년에 맞춰 중국의 동북지역의 “대련-단동-통화-집안-백두산-연길-하얼빈”등을 답사하며, 항일 무장독립군의 발자취와 정신을 따를 예정이다.

답사기간 : 2011년 7월 19(화)~25(월) 6박7일간

답사지역 : 대련-단동-환인-삼원포-집안-백두산-연길-동경성-하얼빈

독립정신 산악회 7월 산행 연기 안내

독립정신 산악회 7월 산행은 독립정신 답사단의 일정으로 인해 8월로 연기된다. 참여를 원하는 회원은 참고를 바란다.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1년 5월, 6월 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5월	6월
(사유정조동호선생기념사업회)	20,000	10,000
강만길	20,000	
강재욱	20,000	20,000
공성진	30,000	30,000
곽태원	50,000	50,000
권상윤	10,000	10,000
권순갑	20,000	20,000
권영관	10,000	10,000
길시원	10,000	10,000
김경애	10,000	10,000
김광림	30,000	30,000
김광재		5,000
김동현	10,000	10,000
김보성	10,000	10,000
김봉현	30,000	30,000
김선근	10,000	10,000
김성근	20,000	
김성록	10,000	10,000
김수정	50,000	150,000
김연실	10,000	10,000
김용덕	10,000	
김용수	5,000	5,000
김원규	210,000	10,000
김 위	20,000	20,000
김위현	50,000	50,000
김자동	100,000	100,000
김재철	100,000	100,000
김재홍	10,000	10,000
김정인	10,000	10,000
김정욱	50,000	50,000
김종배	20,000	20,000
김중숙	10,000	10,000
김진경	5,000	5,000
김진모	20,000	20,000
김진영	10,000	10,000
김진현	50,000	50,000
김판수	5,000	5,000
김학근	10,000	10,000
김호진	10,000	10,000
김희선	10,000	10,000
남만우	30,000	30,000
노시선	30,000	30,000
류동연	5,000	5,000
류시경	30,000	30,000
민향선	70,000	
박경국	10,000	10,000
박녹삼	10,000	10,000
박두근	10,000	10,000
박이영	10,000	10,000
박양수	10,000	10,000
박원표	50,000	50,000
박은봉	30,000	30,000
박의란	30,000	30,000
박인석	10,000	10,000
박정근	30,000	30,000
박형순	10,000	10,000
반병률	10,000	10,000
백낙청	10,000	10,000
백영미	10,000	10,000

회원명	5월	6월
변병식		100,000
서영훈	30,000	30,000
서홍관	30,000	30,000
성인제약(주)	100,000	100,000
송재웅	10,000	10,000
신명식	10,000	10,000
신영연	10,000	10,000
신영한	20,000	10,000
신준수	20,000	20,000
심재권	30,000	30,000
안영찬	5,000	5,000
양인선		20,000
양진호	10,000	10,000
염기남	50,000	50,000
염승훈	10,000	10,000
오승숙	10,000	10,000
오영은	30,000	30,000
오은주	20,000	20,000
오정수	20,000	20,000
우상호	30,000	30,000
원영애	30,000	
유기수	10,000	10,000
유은숙	10,000	10,000
유원목		20,000
윤경자	30,000	30,000
윤영소	10,000	10,000
윤한옥	10,000	10,000
이규중	30,000	30,000
이규호	30,000	30,000
이두희	30,000	30,000
이상준	200,000	200,000
이상훈	10,000	10,000
이성배	10,000	
이영국		10,000
이영후	30,000	30,000
이용규	10,000	10,000
이우재	10,000	10,000
이원혁	100,000	100,000
이응국	5,000	5,000
이인석		10,000
이일선	30,000	30,000
이재선	5,000	5,000
이정재	50,000	50,000
이종락	30,000	30,000
이종찬	100,000	100,000
이창복	40,000	20,000
이창중	20,000	20,000
이학노	20,000	20,000
이학호	10,000	10,000
이학중	30,000	30,000
이해준	20,000	20,000
이혜숙	10,000	10,000
이호현	20,000	20,000
임삼조	10,000	10,000
임진택	5,000	5,000
장은기	20,000	20,000
장팔순	10,000	10,000
장 홍	20,000	20,000
전창일	20,000	20,000

회원명	5월	6월
정동익	30,000	30,000
정만기	30,000	30,000
정범구	30,000	30,000
정재경	10,000	10,000
정철승	30,000	
정환기	10,000	10,000
조기식	20,000	10,000
조명숙	10,000	10,000
조세현	20,000	20,000
조영빈	5,000	10,000
조용준	30,000	30,000
조용환	30,000	30,000
조인형	10,000	10,000
조정훈	30,000	30,000
조희환	10,000	10,000
주석완		10,000
주세영	30,000	30,000
주철기	30,000	30,000
차창식	10,000	
천정배	10,000	10,000
최낙현	20,000	20,000
최문순	10,000	10,000
최병욱	10,000	10,000
최영진	10,000	10,000
최정식		10,000
함세웅	30,000	30,000
홍순권	10,000	10,000
황승일		10,000
황용만	5,000	5,000

2011년 5월, 6월 기념관회비

회원명	5월	6월
차영조	10,000	10,000
최기창	10,000	10,000
유종하	10,000	10,000

2011년 5월, 6월 특별회비

회원명	5월	6월
(주)오토	6,000,000	6,000,000
(주)아뿔철강	2,000,000	2,000,000
이동철	200,000	
삼성전자		30,000,000

◆ 입회원서 ◆

이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택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소			
직업		소속	
비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의민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출금시작월	()월
납부금액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4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		
	자유지정금액 <input type="checkbox"/> (원)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